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284호 2017년 12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뉴욕지역 동창회 2017년 '송년의 밤' 성황리에 개최

뉴욕지역 동창회 2017년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5시에서 10시 반까지 열렸다. 모두 180명의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했다. 각 단과대학이 합심하여 성황을 이루어 낸 모임이었다.

이날 행사는 전체 4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제1부 행사인 칵테일 순서가 오후 5시에 지나고 제2부 행사는 강교숙 사무총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되었고, 2017년 송년의 밤 잔치는 토니 킴과 그의 악단의 팡파르로 시작되었다.
교가제창이 조경애 음대 회장의 지휘로 있었고, 이어서 이대영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의 인사와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 날 참석한 내빈으로는 박윤수 미주동창회 초대회장, 윤상래 미주동창회 14대 회장, 신응남 15대 차기회장, 유시영 커네티컷 동창회 회장, 박용혜 커네티컷 동창회 총무가 참석했다. 이어 윤상래 미주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해민 이사장의 인사, 손경택 골든 클럽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성악가 소프라노 연예슬 동문 (음대 11)의 축가가 있었으며 피아노 반주는 장현주 (음대 02)동문이 했다. 축하 연주가 바이올리니스트 한예진 (음대 01)동문과 피아노 반주 장현주 (음대 02)동문에 의해 있었는데, 열렬한 동문의 요청으로 앙코르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김창수 장학위원장이 4명의 선정된 장학생 김현정 (음대 2014년 졸업), 박나영 (인문대 2012년 졸업), 박정현 (사회대 2009년 졸업), 정아인 (사회대 2006년 졸업)에게 총 만 불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기념 촬영을 한 후, 1부, 2부 순서가 지나고 3부 순서로 이준행 골든 클럽 명예회장의 축배, 김영만 전 회장의 축배, 손대홍 부회장이며 차기회장의 축배가 있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이어졌는데, 지난 10월 뉴저지 썬 셋 골프장에서 있었던 서울대 뉴욕지부 동창회 골프대회 동영상을 양면 스크린에 올려 감상할 수 있었다.
식사 후, 4부는 토니 김과 그의 악단이 여흥시간을 즐겁게 마련해 댄싱 플로는 만원이었다. 중간마다 래플을 뽑아 간호대학에서 기증한 진주 목걸이, 생과대 기증 그림 2점, 동창회에서 2점, 기증한 보석반지, 동창회에서 금일봉 등을 행운상으로 주어 흥미를 더하였다. 그리고 Shake and Go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문 부군의 신나는 열창과 댄스는 대단한 감동을 주었다. 참석한 모든 동문과 가족에게 와인 한 병씩 동창회에서 선물했다. 그리고 여러 동문 분께서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셨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의 즐거운 축배와 댄스 그리고 이야기는 겨울을 잊게 하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일 년에 한번 열리는 축제의 마당에 멋지게 한바탕 어우러졌다. [기사 제공: 강교숙 사무총장]

제27차 평의원 회의 안내

일시: 2018년 6월 15일-17일
장소: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1-508-653-8800

호텔 예약 등 자세한 안내는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동창회비(구독료) 납부 캠페인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서울대 현재와 미래 논의

"서울대, 스스로 바뀌어야 국민 기대 보답한다"

안도경 교수 "총장 선임제 시기상조, 임기는 연임제로"
윤제용 교수 "6년 이상 임기의 서울대 입시위원회 설립"
오정미 교수 "싱크탱크 역할 미래전략연구소 구축"
임정묵 교수 "수익사업 전문화해 안정적 재정 확보"

"지금 서울대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고, 서울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서울대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겨레의 대학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고, 서울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서울대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겨레의 대학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모교 교수협의회 정책연구팀장을 맡은 강창우(독문 84졸)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지난 11월 6일 관악 캠퍼스 아시아 연구소 영원 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의 시대적 소명과 발전 방향 대토론회' 기조 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교 교수협의회(회장 이정상)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모교 교수들이 법인화 6년차인 서울대가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5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과 인프라', '거버넌스', '교육과 사회공헌', '연구와 국제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의 내용은 지난 4월 출범한 제33대 교수협의회 정책연구팀이 진행해 온 논의를 중간 정리한 것이다. 이정상(의학76-83) 교수협의회장은 "수 년 안에 고등교육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울대가 외부 충격에 의해 변하기 보다는 스스로 앞길을 생각하고 고민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낙인 총장과 김병섭(농경제72-76) 평의원회 의장,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표(물리7983) 군산대 물리학과 교수 등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성 총장은 축사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재탄생했지만 현재 모교는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라며 "이제 서울대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국 국공립대학과 힘을 합쳐 국공립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표자인 강창우 교수가 "서울대가 사회에 공헌하는 확실한 방법은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달성하고 사회와 연계하려는 노력"이라며 대학 운영 시스템 혁신과 법인화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법인 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모교가 교육과 연구, 국제화, 재정적 자율 성과 재원 확보, 비정규직 문제, 학내 갈등, 공공성 등의 문제에 처했다고 정리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요 재원 확보와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립이다.

'재정과 인프라'를 주제로 발표한 임정묵(수의학82-87) 농생명 공학부 교수는 정부출연금 지원이 점차 감축되고,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와 세제 혜택 감소로 기부금 모금도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봤다. 평창 캠퍼스 목장장인 임 교수는 경험에 비추어 대학의 학사 기능과 수익 사업 조직을 분리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가장 급한 일로 꼽았다.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 안도경(정치85-90)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총장선출 제도의 현재 틀은 선임제와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 중심의 총장선임 기구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선임제는 제대로 시행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지만 아직 서울대에서는 시기상조다. 법과 규정의 틀 내에서 직선제의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장선출을 위한 숙의와 공론의 조직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4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 '교육과 사회공헌'을 주제로 발표한 윤제용(공업화학80-84)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자율성의 제약으로 고유 입시 모델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이에 6년 이상 임기의 서울대 입시위원회를 설립해 입시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입시 연구소를 설립해 70년간 축적된 서울대 입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공유하자고 제언했다.

오정미 약학과 교수는 '연구와 국제화' 주제 발표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미래전략연구소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또 국제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대 국제 공동연구실 프로그램을 비롯해 관악캠퍼 스와 신림동·낙성대 일대, 시흥캠퍼스를 잇는 벤처 삼각벨트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각 발제 후에는 주제별로 종합토론을 펼쳤다. 김상표 국교련 상임 회장, 김완진(경제72-76) 경제학부 교수, 오세정(물리71-75) 국회의원, 이현숙(대학 원90-92) 생명과학부 교수가 '교육과 사회 공헌', '연구와 국제화' 주제로 토론했다. 김상표 상임회장은 "서울대가 과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반문하며 "정량적인 지표를 강조하다 보면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과 인프라', '거버넌스' 주제로는 김수욱(경영85-89) 경영학과 교수, 본회 부회장인 김진국(정치78-85) 중앙일보 대기자,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준형 (법학75-79)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김진국 대기자는 총장 선출에 대해 "직선제 선거는 표 사냥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보다는 대표 집단을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가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교수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주문했다.

발전기금 기금본부장을 지낸 김수욱 교수는 수익 사업과 관련해 "아직 모교 내에서도 '서울대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마인드가 많다"며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재정을 늘리는 데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1. 뉴욕지역 동창회 2017년 '송년의 밤' 성황리에 개최, 강교숙
2. 모교소식: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서울대 현재와 미래 논의, 박수진
3. 기고: 미국 헌법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항렬
4. 기고: 소시얼 미디어의 "관심 경제" (Attention Economy), 백순 / '자연의 성 역차별' , 이태상
5. 대한민국은 외모 중시 국가?, 오준 / 슬픈 사실, 장동만
6. 지부 소식: 뉴욕지역 동창회 /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7. 지부 소식: 필라델피아 동창회 / 남가주 동문 합창단
8. 지부 소식: 조지아 동창회 / 김용구 (공대 66) 동문 the 2016 Scholar of the Year Award 수상
9. 동창회와 501(c)3 status, 한경진 / 강영일 개인전
10. 워싱턴 주 동창회 /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가? 기후 변화를 맞이하는 식물, 노형민
11. 문화 산책: 제일 훌륭한 오페라, 장용복 / 예술은 구원인가?, 장소현
12. 기고: 한반도의 위기, 최용완 / 고독한 산책자의 명상, 민경훈
13. 수필: 작은 동물 농장, 김수영
14. 기고: 배움의 병리학 -아는 것도 병이련가–, 이원택
15. 기고: 배움의 병리학 -아는 것도 병이련가–, 이원택
16. 기고: 첫 사랑, 김영덕 / 나이 들면 왜 말이 많아질까, 이종호
17. 기고: 이순신의 탄생과 가문 덕수 이씨 (德水 李氏), 이내원
18. 역사 이야기: 수메르인의 생명 나무 전통과 신단수, 최은관
19. 역사 이야기: 수메르인의 생명 나무 전통과 신단수, 최은관 / 2017년 홈커밍데이를 다녀와서, 허유선
20. 문화 산책: Ingmar Bergman의 영상 세계, 한수웅
21. 문화 산책: Ingmar Bergman의 영상 세계, 한수웅
22. 기고: 배움의 병리학 -아는 것도 병이련가–, 이원택 / Ingmar Bergman의 영상 세계, 한수웅
23. 역사 이야기: 워싱턴 장군과 밸리 포지(Valley Forge), 정홍택
24. 연말에 떠오르는 추억, 편집위원 / 워싱턴 장군과 밸리 포지(Valley Forge), 정홍택
25. 연말에 떠오르는 추억, 편집위원 / 광고
26. 후원금 집계,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27. 동창회비 집계
28. 미주 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종신이사회비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32. 광고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미국 헌법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

미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이 제정된 후, 226년이 지난 오늘에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나 사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최대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핵전쟁의 위험시대에서 헌법 규정대로 행정부와 입법의 권한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에 의하면 전쟁 선전 포고는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나 만약 북한이 미국에게 핵폭탄을 먼저 발사하였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 선전 포고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차대전 이후로 미국이 한국, 베트남, 이락,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으나 한번도 선전포고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또한 입법부나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이 그의 군사권에 의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파견하였을 때, 대부분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지지하였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정치가 점점 더 대통령 중심으로 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가 마치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가 통치해야 된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와 반대로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을 헌법 정신에 따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는 현재의 Robert Muller 특별조사단이 하는 것 같이 대통령과 그의 주위 사람들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막기 위하여 226년 전 미국의 헌법 초안자들은 헌법 2조 4항에 대통령이 반역(Treason)을 하거나 경범죄(Misdemeanor)를 저지른 경우에도 하원의 과반수가 탄핵소추(Impeachment)를 할 수 있으며, 상원의 2/3가 탄핵소추를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 22조는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못하도록 대통령은 2번이상(8년) 대통령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외에도 후에 첨부된 수정안 25조 3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의 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능력이 없을 때, 부통령과 내각 다수가 동의하면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였다. 실례로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결장암 수술을 하는 8시간 동안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권한을 대행하였으며, 2002년과 2007년 George W. Bush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부통령 Richard B. Cheney가 임시 대통령직을 맡았었다.
탄핵소추의 실례로는 제17대 대통령 Andrew Johnson이 탄핵을 당했으나 1표 차로 ¾의 상원 동의가 안되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제42대 대통령 Bill Clinton의 경우는 하원에서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과반수도 못되는 41표 만 찬성하여 Second Term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지금도 전임 대통령 인기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Nixon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 전에 사임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 후, 정국이 어수선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와 선거에서 협조, 공모(Collude)하여 선거를 치렀다는 혐의와 의문 때문에 상하원의 사법 위원회(Judiciary committee)와 정보 위원회(Intelligence committee)가 그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벌써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위원장 Paul Manafort와 부위원장 Rick Gates는 기소(Indict) 당했고, 12월 1일에는 백악관의 국가안보 위원장을 맡았던 Mike Flynn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현재 특별 검사위원회를 맡아 트럼프 선거팀을 조사하는 특별검사 Robert Muller에게 수사 협조를 하는 것 같다. 현재 사정같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불법도 들어 날 것 같다. 현재 트럼프 선거팀과 러시아와의 Colluding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민주당과 News Media(Fox News 제외)가 거짓(Fake) 지어낸 가짜 연극이라는 것이다.
현재 또하나의 문제는 헌법 2조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관할하에 있는 연방정부 범죄자들의 죄를 사면(Pardon)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자기 죄를 자신이 사면 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자기를 사면 할 때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 Nixon 대통령 경우와 같이 양심있는 공화당 지도자들도 다수가 대통령의 하야를 종용할 것이고, 헌법 2조에 따라 탄핵소추를 감행 할 것이다.
어쩌다 미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냐는 후세 역사가들이 연구하겠지만 현재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에 회의를 품는 시민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다시한번 고대 Solon의 민주주의 체제와 Athenes 민주 도시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느냐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근세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John Locke이 주장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첫째, 권력을 분산(Seperation of Power) 하여야 하며, 또 다른 정치학의 거장인 프랑스의 Montesquieu가 주장한 것 처럼 힘의 분산이외에도 3권 분립(Checks & Balances)을 세워 다른 부끼리 서로의 힘을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현재 민주주의 선봉인 미국은 제왕적, 선동적,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 반이민자 정서를 가진 정치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추종하여서는 안된다.

전 쉐파드 대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인 교수 협회 회장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서울대 현재와 미래 논의

오세정 국회의원

이현숙 교수

이날 논의의 기저에는 현재 서울대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 그간 언론 보도에서 졸업생 중 사회 병폐에 깊숙이 연루된 사례나 학내 갈등 상황이 부각됐고,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날 '교육과 사회공헌', '연구와 국제화' 부문 토론자인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이현숙 생명과학부 교수는 각각 학부 교육의 강화와 사회와의 소통에서 답을 찾자고 제안했다.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지낸 오세정 의원은 "학교를 떠나서 보니 서울대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국회에서도 '서울대가 한 게 뭔가, 왜 도와줘야 하나'란 말을 공공연히 듣는다"고 운을 뗐다. 오 의원은 "서울대가 가진 위상은 일종의 소프트 파워다. 한 번 없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며 "노벨상 받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공공의식을 갖고 있는 졸업생들을 서울대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이 공공성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는 학부 교육에 좀 더 신경쓰게 만들려면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 했다. 강의계획서와 교과서, 숙제, 시험문제를 살펴보고 학생 인터뷰까지 하면서 교육자를 평가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학부 교육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싱크탱크가 꼭 필요한데, 인문사회부터 자연과학까지 인프라를 갖췄고 정부 입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서울대가 가장 적임"이라 며 오정미 교수가 제안한 '미래전략연구소'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현숙 교수는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서울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과거 케임브리지 대가 동문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표본을 추출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 성공했던 사례를 들었다. "서울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자신 있게 '혁신의 대학', '세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교정하고 혁신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 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네트워크에서 서울대의 책임감을 일컫는 '맏형론'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연구와 국제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봤을 때 동반자적, 수평적 관계에서 국내 대학들의 연구 국제화에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가 가진 자원들이 해외로 뻗어나가기에 가장 좋다. 누구라도 여기 와서 같이 연구하고 서울대를 교두보 삼아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이는 대학의 공공성과도 통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 통일 문제, 바이오메디신 등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로 허브가 되는 연구소를 구성하고, 장비도 혼자 쓰기보다 대학 간에 개방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소시얼 미디어의 "관심 경제" (Attention Economy)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페이스 북, 구글, 유투브, 트윗터 등 소시얼 미디어 (Social Media)가 사람들의 통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직장일 말고 하루 온라인에 접촉하는 시간이 홍콩 5시간, 영국 4시간 반, 미국과 중국 4시간, 그리고 일본 3시간 등으로 현대인들은 소시얼 미디어의 블랙홀에 빠져 있다. 미국의 경우 소시얼 미디어에 접촉하는 수치가 1분에 3백만번 내지 4백만번으로 소시얼 미디어의 점유율은 매우 크다.

통신혁명의 중요성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금년 500주년을 맞이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은 인쇄 출판의 통신 혁명으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공했음을 알 수 있고, 19세기 및 20세기 이후 민주주의가 많은 나라에 번지게 된 것도 신문과 방송과 TV 등의 통신 혁명에 기여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소시얼 미디어의 통신 혁명이 과연 인류의 생활, 특히 정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주장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는 소시얼 미디어의 관심 경제와 관련된 주장들이다. 소시얼 미디어의 관심 경제란 소시얼 미디어가 인간의 관심(Attention) 이라는 상품을 취득(생산)하고, 조정(경영)하고, 소비하는 일(사업)을 하는 기구/조직(시장)이라는 설명이다. 관심 경제의 이론은 오래전에 제창된 바 있다. 1971년 유명한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이 "정보(Information)는 정보수형자들의 관심을 소비시킨다"고 제창한 바 있다. 이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적인 측면으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영향을 가져 온다. 소시얼 미디어는 독재 권력의 나쁜 상황을 퍼트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는 관심 소비 활동을 통하여 독재 정권의 타도를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2011년 이집트 장군 호시니 무바락의 몰락이나 2013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사임 등이 소시얼 미디어로 인한 관심과 목소리의 집중에 기인하였음이 그 좋은 예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세가지이다.
첫째 부정적인 측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영향이다. 소시얼 미디어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들려지고 알려지고 존중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는 바이러스와 같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 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 관심의 소비를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는 1천만 명의 소시얼 미디어가 확산되었고, 트럼프의 2016년 대통령 선거 켐페인도 매일 5만 및 6만의 소시얼 미디어를 페이스북에 올리었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은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영향이다. 소시얼 미디어는 만가, 춘화, 유모어, 분노, 윤창, 루모 등 흥미유발의 정보를 활용하므로서 보수적 및 진보적인 정치적 양극화로 관심의 소비를 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의 중간 수치가 1994년 별로 크지 아니하였는데 2017년에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퓨 연구센터의 연구결과이다.

셋째 부정적인 측면은 폭민 정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이루는 영향이다. 소시얼 미디어는 많은 경우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므로 말미암아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얼마의 민중들이 승리하는 폭민주의(Mobocracy)를 결과하는 영향이다. 2017년 극우 정당인 독일대체당의 12.6% 의석 차지는 독일인보다 시리아 피난민이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짓 정보의 소시얼 미디어 확산에 기인하였고,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권력 유지가 바로 폭민주의의 결과라 해도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래서 소시얼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를 제창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용량은 거의 무제한이기 때문에 규제의 유용성이 논의되고 있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자연의 성 역차별'

이태상 (문리 55)

먼저 퀴즈부터 하나 내 볼까요. 부부가 심하게 다투다 못해 어느 판사를 찾아가 물었지요.

A. 100% 남자 잘못이다.
B. 남녀 50%씩 잘못이다.
C. 100% 여자 잘못이다.

대번 맞히시겠지만, 정답은 C 이죠. 어른이 애하고 싸웠으니까. 하 하~

집에서 닭을 키워본 사람의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어보니, 자연의 성(性) 역(逆)차별이 너무도 명명백백하네요. 양계장에서 부화한지 하루 된 암병아리 12 마리를 사올 때면 숫병아리 12 마리를 공짜로 주는데 둘 만 갖고 온답니다. 키워 교미용으로 쓸 수탉은 2 마리면 되기 때문에 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네요. 수탉 한 마리가 앎탉 6 마리하고 교미해 유정란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정란에 비해 교미없이 낳는 무정란은 거의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네요. 먹어도 유정란만큼 맛도 없어 버려져 썩어 없어진답니다. 부화하자 마자 병아리도 감별사에 의해 분리된 숫병아리들은 교미용으로 키울 소수만 제외하곤 죄다 쓰레기로 처분된다지요. 교미용 말고도 옛날에는 수탉이 꼬끼오 꼬꼬댁 목청껏 울어 새벽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했었지만 괘종 시계 alarm clock이 발명된 이후로는 그런 용도조차 폐기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수탉과 암탉이 교미해 생긴 유정란이 부화하는 병아리도 암수의 비율이 평균 반반이라니,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도 매한가지가 아닙니까. 하지만 숫놈의 가치는 암놈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암탉은 한 주에 엿새는 매일같이 알을 낳지만 하루는 쉰답니다. 농토도 6년 농사 짓고는 일년 쉬곤 했었었는데, 이제는 한 해도 농토를 놀리지 않고 양분이 고갈된 땅에다 화학비료까지 사용하다보니 그 수확물도 옛날처럼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이제 닭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사람 얘기 좀 해볼까요.

인류사회학자들 주장대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계사회로 출발했었던 인류가 어떻게 전쟁과 약탈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 부계사회로 뒤집히게 되었을까요? 감히 추리 유추해 보건데, 인류 역사상 최대 최장의 엄청나고 끔찍한 음모가 신과 종교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벌써 몇 천 년째 잔악무도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적인 동양이 아니고 남성적인 서양에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단세포 아메바 같이 본능적 성욕 리비도(libido)하나밖에 모르는 한없이 끝없이 미숙한 남성의 쓸모가 점차로 줄어들자, 특히 신체적으로 병약하고 허약해진 남자들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얍삽하기 이를 데 없는 구실과 잔꾀로 기상천외의 허구, 소설(小說)이 아닌 대설(大說), 전적으로 남성위주의 뻥튀기 새빨간 거짓말 책을 '창세기'니 '구약'이니, '신약' 성서(Bible), 또는 코란(Quran) 경전이란 신성불가침의 괴상망측(怪 常 罔 測)한 귀서(鬼書)를 쓴 거죠.

천사니 사탄이니. 선이니 악이니, 죄와 벌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허구를 만들어 도깨비 같은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신(男神)이 필요하다면서 남성(男性) 천국 여성(女性) 지옥을 음모 조작해온 것 아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일 아닙니다. 희망의 서광이 벌써 비추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시 모계사회로 회귀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만 들어보더라도 1998년 남녀 대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50대 50 반반이다가 1999년부터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남성의 성곽이던 미육해공군사관학교에도 많은 여학생이 진학해 2005년도부턴 1, 2, 3등 수석졸업생 3분의 2가 여생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등장했고, 앞으로는 모든 여성 분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The Sky's the Limit. 이지요. Cheers! Bravo!! 여성 만세!!!

대한민국은 외모 중시 국가?

오 준 (문리 74)
전 유엔 대사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하면 우리 사회가 외국과 다른 점이 눈에 잘 뜨입니다. 그 중 하나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고나 TV 등 매체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TV를 1시간만 보거나 지하철 광고판을 10분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물론 매체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인상이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처럼 TV 뉴스는 물론이고 일기예보까지 젊고 미인인 여성 앵커들이 진행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특히 일기예보는 마음 좋은 아저씨나 아주머니같은 인상의 캐스터들이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 우리는 다를까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필자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광고에 외국에서는 실제 사용자와 유사한 중년의 인상 좋은 남녀 배우들이 많이 나오던데, 왜 우리는 젊고 예쁘고 심지어 섹시한 콘셉트의 여성 광고 모델을 사용하지? 광고 만들 때 시장 조사도 안 하시나?"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답변은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물론 시장조사를 해보면 중년의 가정주부들이 구매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드신 여성들도 자신을 또래의 중년층보다는 젊고 예쁜 여성들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생각이 편견이기를 바라는 필자는 몇 달 전 페이스북에 "우리가 외국과 비교할 때 외모를 더 중시한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댓글이 올라왔죠. 그럴 듯한 설명의 하나는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성취하려 해서 사람을 보면 첫인상으로 결론을 내리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의 남성은 젊지도 않고 특별히 미남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나오는 건 왜 그런지 반문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해서 여성의 경우는 실력이나 내실보다 외모를 더 중시한다"는 댓글이 바로 떴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냉장고 광고 전혀 살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젊은 미인이 나오는 것을 중년 여성들도 더 좋아한다는 광고회사 친구의 설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전문적인 견해의 반론 댓글도 이렇게 올라왔습 니다. "우리 남성도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남성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릴 정도다.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이 아닌 계층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특히 대중이 집단인식에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종종 마케팅 실험대상이 되기도 한다." 필자의 집요한 질문에 식상한 어떤 분은 "우리와 외국은 그냥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는 일기예보와 냉장고 광고에서도 젊고 예쁜 여성을 보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골치 아프게 따질 것 없이 이게 정답일까요? 필자가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3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줄서기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공중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선진 외국에 처음 근무하게 되어서 어디서나 반드시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는 문화와 깨끗한 화장실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문화의 차이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러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해서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안 되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갖게 되었고 줄서기와 순서 지키기도 잘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즉, 더러운 화장실과 순서를 안 지키던 것은 우리의 문화 때문이 아니었고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서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뒤에서 기다리는 여성이 먼저 타도록 남성이 양보해 주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줄서기처럼 효율성을 높이는 공익적 발전으로 간주되기 어려워서 우리 사회에 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앞에 서있는 사람이 먼저 타야죠.) 우리가 순서 지키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한 진동벨 같은 것을 전국의 작은 커피숍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외국과 비교할 때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로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시작되었든 내실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는 우리 모두의 공익이나 사회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길게 보아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거쳐가는 현상 중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최근 일부 TV 뉴스에서 나이 드신 앵커나 장애인 앵커도 출연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경희대 교수

> "우리 사회가 외국과 비교할 때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로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사실

장동만 (문리 55)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다. 미국에 사는 교포 중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 주에 3~4명 꼴 이란다. 최근 5년 동안 875 명이 자살, 매해 평균 175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LA 중앙일보 04/18/17일자 참조)

"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나 이 땅에 온 우리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일까?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 '전미 자살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인(Korean)은 매년 150~19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150 명이 자살한 뒤, 2012년 188 명으로 25% 급증했다. 2013년엔 155 명으로 21% 줄었다가 2014년엔 189명으로 전년보다 22% (34명)나 늘었다. 2015년에는 193명 (여성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100건 당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3.7% (2015년)~4.4% (2010년)로 미국 내 각 인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주민 3.2%, 인도계 2.5%, 베트남계 2.0%, 백인은 1.7%, 흑인 0.8% 순이었다. 자살자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 1세대 또는 1.5세대 였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OECD 34개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11년째 부동의 1위다. 2015년 자살자 수는 1만 4천 427명, 하루 평균 39.5 명 이었다.

미주 한인 매주 3~4명 자살

교포들의 자살 연령 분포를 보면 한국과는 많이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은 노년층의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교포들 자살은 청/장년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교포 자살을 연령별로 보면, 15~24세 31명 (16%), 25~34세가 39명 (20%), 35~44세가 34명 (18%), 45~54세 32명 (16.5%), 65~74세 15명 (8%), 75~84세 10명 (5%), 85세 이상이 3명 (1.5%) 순이었다.

자살 동기/원인 또한 많이 다르다. 한국의 노년층이 빈곤, 질병, 고독이 그 주 원인인데 반해, 젊은 교포들은 좌절, 고립감, 사업 실패, 문화 충격, 가정 불화 (이혼)가 으뜸되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 동기/원인이 어쩌 되었건, 많은 교포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는 자살한 사람을 두고 이런 저런 많은 말을 한다. "자살할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갖고 살아 볼 일이지...", "그 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자살로 내모는 것은 "나로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그가 아니고 또한 내가 그의 상황에 처해 보지 않는 한, 그들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산자들의 오만이자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다.

* "사람이 죽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는 삶의 고뇌가 이미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었을 때다." -에우리피데스 (Euripides, BC 484?~BC406?) / 그리스 철학자

뉴욕지역 동창회 송년의 밤

장학금 수혜자들 기념촬영

공대, 농대 테이블

음대 테이블

약대 테이블

법대 테이블

상대 테이블

내빈 테이블

공대 테이블

인사말하는 이대영 회장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 축사

공대 테이블

한예진 (음대01)동문 축하 연주

약대 테이블

미대 테이블

의대, 생과대 테이블

사대 테이블

간호대 테이블

장학생, 장학위원 테이블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Baja California-Mexico Cruise 단체 여행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공대 동문 20명은 멕시코 크루즈를 떠났다.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떠나며 특히 이동의 편안함과 여유로운 휴양과 낭만을 즐기기 위해 Luxury한 Cruise를 탄다. Long Beach항에서 승선하는 대로 각자의 Cabin에서 짐을 풀고 Lido deck에 위치한 24hr open Buffett 식당에 모여서 바다 위로 저물어 가는 석양노을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Santa Catalina Island의 낯익은 둥근 옛 Casino 건물(현재 Museum)이 눈에 들어왔다. Breakfast도 자유롭게 원하는 식당에서 하고 Shore Excursions도 각자 원하는 대로 Glass Bottom Boat를 탔는데 바다 밑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보거나 2인용 Kayak, 또는 바다에서 800 feet 이상 하늘로 올라가는 Parasailing도 즐길 수 있었다. 단체로는 Zeep을 타고 Sea Level에서 600 feet 되는 Avalon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올라 갔다 오거나 Island를 한바퀴 도는 Boat를 타고 섬 관광을 즐기기도 했다.

parasailing 한효동, 서치원

Cruise로 돌아 와서는 모여 앉아서 각자 그날 섬에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거의 밤을 새고 나니 배는 Ensenada, Mexico에 정박하고 있었다. 일행 중 8명(2 foursomes)은 차로 30분 가량 걸리는 Mexico의 Pebble Beach라는 Bajamar Golf Resort로 가서 Pacific Ocean을 내려다 보며 Golf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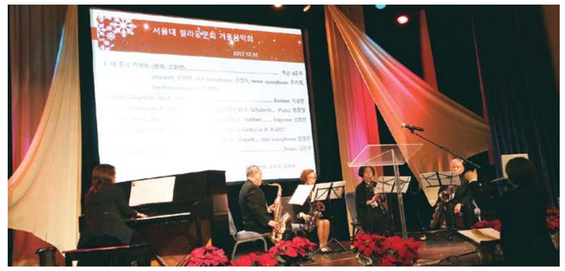
그외 일행은 La Bufadora, Wine country adventure 또는 Baja Bandidos Horseback Riding들을 즐기기도 했다. 저녁에는 지정된 고급 Restaurant에서 10명씩 2 Table을 우리 Group이 차지하고 Full Course Dinner 때마다 서로 treat하겠다는 Wine을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서로 나누었다. 식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이 뜻하지 않게 흘러나와 모두들 말춤을 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함께 신나게 추었다.

Ensenada를 떠난 다음 날은 하루종일 배가 해상에 있는 관계로 Cruise 안에 있는 Casino를 비롯해서 Bingo Game을 즐겼다. 정장을 입고 Captain과 cocktail을 마시며 재미있는 Musical Show도 같이 관람하고 건강에 관한 Seminar 또는 미용에 관한 강연, 그리고 선상 pool이나 Big Screen에 보이는 영화를 보면서 우린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많은 시간을 정말 재미있고 보람되게 동문들과 지내고 돌아왔다. [기사제공: 한효동(공대회장)]

필라델피아 동창회
송년회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박혜란(음대 85)) 송년회가 12월 2일 토요일 저녁 6시에 13대 미주동창회 본부가 위치했던 갈보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7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이 자리는 비전공 동문들이 출연하는 겨울음악회와 더불어 열려 뜻있는 모임이 되었다. 교가 제창 후 박혜란 회장의 인삿말 후 한식 부페로 차려진 음식을 여러개의 원탁에 둘러 앉아 나눈 후, 음악회가 열렸다. 조화연(음대 64) 동문이 편곡한 '내 주를 가까이' 찬송곡을 신선자(사대 60), 신성식(공대 56), 주기목(수의 68), 김영우(공대 55) 동문들로 구성된 목관 4중주로 시작한 음악회는 지흥민(수의 61) 동문의 바리톤 독창, 엄종열(미대 61) 동문의 피아노 연주, 김영우 동문의 알토섹스폰 연주, 김진우(공대 62) 동문의 가곡' 산노을', 강준철(사대 59) 동문의 풀피리 연주, 한동휘(문리 57) 동문의 피아노 연주, 전희근(의대 54) 동문의 테너 아리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전공동문 심회진(음대 90), 유미영(음대 87)과 비동문 찬조 출연으로 강현승 씨의 바이얼린 연주, 한국무용가 박선영 씨의 태평무와 진도 북춤 등이 흥을 돋우었다. 특히 현란한 피아노 연주(Chopin's Fantasie Impromtu)를 보여준 한동휘 동문은 유명한 한동일 피아니스트의 형임이 알려졌고, 강준철 동문이 들려 준 풀피리 연주 (Shubert Ave Maria)는 간들어지는 높고 낮은 음정의 연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순서로 간단한 여흥 후, Raffle 뽑기가 이어졌고, 서울대 티셔츠를 선물로 받아들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기사제공: 김정현]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

12월2일 2017년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이 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에서 430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다. Zipper Concert Hall 은 자그마하고 아담한 무대가 관객과의 거리가 없어 아늑함을 더 자아낸다. 무대 음향은 아주 맑고 섬세하여 아름다운 악기의 음색과 합창 화음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단장 강정자 (간호대 61) 동문님의 인사말씀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뜻을 같이한 동문들이 일주일 한 번씩 모여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마음이 되고 그 속에서 우정을 나누며 위안을 받고 자기만의 시간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꾸어 온 결실로 이번 연주회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삶에 작은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또한 장진영 (음대 88)지휘자님의 넉넉한 품성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합창반 책임자 박인옥 (음대 65)외 이사 및 박영희 (음대 66)외 단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특별 초대 출연자들께 감사함과 광고후원을 협찬해 주신 분들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성주경 회장 및 단과대학 회장께 감사함을 전했다. 성주경 (상대 68)회장의 인사말씀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음악전공이 아닌 타 단과대학 동문들도 함께하는 합창반 단원들은 매주 모여 연습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함께 해온 것이 중요하며, 그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연주회를 축하하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동부에서 방문온 원용숙 (음대 65) 전 Antioch University 교수의 이번 공연 음악평을 들어본다. "LA에 사는 친구 방문 중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과 리허설을 관람 할 수 있었으며, 12월 2일 Colburn School 의 지퍼 음악당에서 열린 이 공연은 빈자리 없이 청중들로 가득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중들과 마음을 열고 교감할 수 있어 흐뭇하고 정겨웠다. 연주회 막을 연 5개의 히브리의 사랑 노래에선 바이올린 박민정 (음대 80)과 피아노 김언정 (음대 86)의 사랑스러운 대화가 합창의 아름다운 가사와 은은한 화음에 마치 수를 놓고 있는 듯 했다. 곡 중 소프라노 조은아의 청아한 목소리가 이 곡의 감칠 맛을 더해 주었다. 옛 친구가 그리워지는 동무 생각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과 겨울을 노래한 추심과 눈은 멀리 떠나온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 고유의 악기인 가야금 장경선 (음대 89) 해금 (박영인 타동문) 대금 박종대 (음대 64) 장고가 피아노와 어울려 울리고 합창단 앞에서는 유희자 (음대 66) 동문 문하생들의 화려한 부채춤이 펼쳐져 아리랑, 도라지, 한강수, 경복궁 타령에서는 청중들까지 절로 어깨춤이 추워지는 흥겨운 한마당이었다.

박민정의 바이올린과 김언정의 피아노가 선사한 Christmas Adventure는 탁월한 연주와 시기적절한 선곡이었다. 환호하는 청중에게 엄지를 치켜 올리며 답례로 날려보낸 'you are the best audience' 박민정의 재치 있는 코멘트로 청중을 더욱 즐겁게 해줬다. 흥겨운 타악기의 리듬과 더불어 연주된 Silver Bells, Deck The Hall 합창은 어린이들의 Handbell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를 축제 무드로 이끌고 갔다. 아프리카 캐롤 Betelehmu에선 합창의 허밍을 백그라운드로 한 지휘자 장진영의 바리톤 쏠로는 인상적이였고 콩가(Samuel Mazur)와 탬버린 (박상연)의 다이내믹한 리듬을 타고 합창은 절정에 이르렀다. 작곡가인 나에게도 또 다른 오묘한 화음의세계를 재삼 느끼게 해 주었다. 마지막 순서인 O Holy Night은 합창단이 선창한 후 청중과 함께 호흡하며 즐겁게 소리쳐 노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열광적으로 외치는 앙코르 소리에 합창단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를 선사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고 환호하는 청중을 향해 지휘자가 돌아서서 싸인을 주자 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를 흥분속에서 즐겁게 제창 했다."라고 극찬의 음악평을 해주었다.

장진영 지휘자님과 강정자 단장님외 합창반 단원님들의 화합됨이 그대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승화되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선사되는 기억에 남는 음악회였다.
[기사제공: 조직국장 백옥자 (음대 71)]

올해의 가수왕 장민구 동문

조지아 동창회 송년 모임

서울대 조지아 지부 동창회(회장 주지영)는 지난 12월 3일 Johns Creek에 위치한 St. Ives Country Club House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조지아의 겨울답게 화씨 60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였지만, 클럽하우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은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44학번 이철남 동문(의대)에서부터 96학번 김승범 동문(사회대)까지 총 99명의 동문 가족들(동문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붓하면서도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졌다.

본행사에 앞서 조명이 밝혀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 포토존에서 "나도 모델이다" 컨셉의 개인별・부부별 깜짝 사진 촬영(최재경 작가・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는데, 고학번 선배들은 키 차이가 나는 아내를 위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는 배려를 보이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다.

허지영 회장(문리대 66)의 따뜻한 환영사에 이어 장학생 선발(장학위원장・부회장 공영식)과 주소록 책자 준비(이일순 총무)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특히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통해 조지아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내년 총회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식사에 앞서 박종유 목사(공대 59)가 서울대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렸고, 김용건 박사(문리대 48)의 건배 제의로 즐거운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사 하는 동안에는 동문회의 '위즈 키드' 이영진 재무(공대 76)가 지난 한해 동안의 행사 사진들을 모아 만든 슬라이드 쇼를 함께 시청했다. 스테이크, 연어 구이, 해산물 샐러드, 초콜렛 무스 케이크, 떡과 와인, 과일 등 고급스러우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골고루 준비되었다.

식사 후 공영식 부회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오락 시간이 시작되었다. 넌센스 퀴즈와 "나도 가수다" 프로그램이 번갈아 진행되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이었다. 예를 들면 "세 사람이 타는 차를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같은 질문의 답을 맞추고 상을 받는 즉시 가수 자격으로 노래를 하러 나가는 식이었다. 가수들의 노래 실력과 의상들도 수준급이었지만, 다른 동문이 노래를 부를 때 자발적으로 달려나가 신나게 몸을 흔들거나, 조용한 음악에 맞춰 블루스를 선보이는 등, 관객들의 매너도 훌륭했다.

이날 혜성처럼 나타나 가수왕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으니, 구수한 목소리로 트로트를 부른 장민구 동문(공대 86)이었다. 직업이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목사인 것이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었다. 다음 순서는 권태영・권영주 부부에게 라인댄스를 배우는 시간. 즉석에서 동작을 익힌 후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 함께 춤을 추었다. 평소 실력을 갈고 닦은 동문들은 당당한 스텝과 그루브로 더욱 빛을 발했다.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를 잘 해야 인기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예・체능을 잘 해야 사랑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 자리였다.

시종일관 정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은 눈치 없이 빨리 흘렀고, 아쉬움 속에 교가를 합창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올 한 해도 아름답게 추억하며 힘찬 새해를 기약할 수 있는 건, 그리움 가득한 이국 땅에서도 동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사제공: 최재경]

김용구 (공대 66) 동문
the 2016 Scholar of the Year Award 수상

Excellence in Research: High Fiber Density Fuel Cell Electrodes and Multiple Patents

Chancellor Professor Yong Ku Kim is working with a variety of research partners and has been issued 12 US patents ranging from structures for absorbing mechanical impact energy, auxetic fabrics biomedical specimen collection device and material, materials methodology to improve the delamination strength of laminar composites, lead pellet recovery fabric and high fiber density fuel cell electrodes.

Kim and his colleagues submitted eight pending US and European patents. He has received research fund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sources.

One of his projects with the Naval Undersea Warfare Center involves increasing fiber density in electrostatic flocking for fuel cell electrodes. This type of material can enhance current density of fuel cells and heat transfer, and has a number of potential uses, such as in fuel cells for use in underwater applications, as well as in certai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Currently UMass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Ventures licensed this technology to a microelectronics manufacturer in San Diego, California.

Kim is also involved in the Head Health Challenge III. The Head Health Challenge was developed by the NFL, Under Armour, G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to better diagnose mild traumatic brain injury, improve protection, and advance materials to mitigate impact in sports. Kim and his partners developed Flocked Energy Absorbing Material technology, a radical new energy-absorbing padding used in helmets and body armor.

Yong Kim and Dr. Samuel Ugbolue developed and patented warp-knitted auxetic fabric structures with Navy grants, which can be applied to biomedical, protective structures and comfortable apparels.

한경진 (상대 59)

동창회와 501(c)3 status

필자는 2017년 시카고 지부 동창회 회장 으로 재임 하면서 시카고 지부가 당면 했던 501(c)3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주 총동창회 신응남 차기 회장님으로부터 유사한 문제에 당면한 지부들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시카고 지부의 경험담을, 미주 동창회보를 통해,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Sister 지부 동창회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

동창회에서 장학 프로그램과 같은 주요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며 기금을 확보하기위해서는 IRS로부터 501(c)3 status를 얻고, 그 status를 유지하는것이 필요한 것은 독자들도 이미 알고 계실줄 안다.

한 예를 들어, marginal income tax rate 가 28%인 기부자가 $1000을 헌금할 경우 (deductions을 itemize 한다는 가정하에)를 생각해 보자. 기부자의 입장으로 보아, 501(c)3 status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절세가 되어 net cost가 $720이 되겠으나, 501(c)3 status가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net cost가 $1000이 될 것이다. 기부자가 수혜 비영리 단체를 선택할 경우, 501(c)3 지위가 있는 조직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동창회 조직의 임원이나, 이사로 책임을 맡는 경우 조직의 status 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조직의 501(c)3 status 신청이나 유지에 필요한 세무보고 등을 일임하기 때문에 조직의 임원은 실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임원이 실태를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구 임원의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status 유지를 위한 세무 보고나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 status 를 잃어 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다.

조직의 status 실태 파악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IRS 의 EO search site (https://apps.irs.gov/app/eos/) 에 올라가 조직의 이름이나, FEIN 로 search 를 해 status 를 확인 하는 것이다.

세무 보고가 안되었거나 늦어져 Delinquenct가 된 경우 세무보고 의무를 기일내에 마치는 것이 중요하며, 3년간 보고를 안해 status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status 의 reinstatement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Status 회복은 사무적으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현임원과 차기 임원이 긴밀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2,500 전후의 비용이 들며,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몇개월내지 1년이나 걸리는 것이 상례이다.

시카고 지부의 경우 사무상의 착오로 status 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2017년 임원진이 취임 후,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담당회계사에게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임원진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17년 team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해 보았으나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Boston 평의원 회의에서 인사를 나눈 총동창회 차기회장 신응남 변호사 동문과 의론을 하게 되었고, 신응남 변호사와 함께 IRS 접촉을 시작하고, 필요한 서류를 IRS에 제공해, 3개월안에, 소급해서, 501(c)3 지위의 회복을 이루었다. 시카고 지부의 경우는 professional fees는 물론, IRS fee 조차 물지 않았으니 best case 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application fee, professional fee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음으로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지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거나, 무료 봉사를 할 변호사나 회계사을 찾아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501(c)3 지위상실을 무시하고, 기부금을 계속 받아들이는 practice 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 (1) 조직은 영리단체의 세무 보고 및 납세를 하여야 하며, (2) 기부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3) Private foundations 에서의 기부가 단절 되는 등 위험부담이 막중하며, 조직은 물론, 임원이나 이사에게 까지도 지위상실로 파생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선책은 501(c)3 지위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차선책은 지위 유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최악의 경우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다.

필자의 소견 으로는, 501(c)3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주 총동창회에서, 지위 상실 문제에 직면한 지부 동창회에 제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 지부 동창회를 활성화 시키는 기초적인,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상래 회장님과 차기회장 신응남 변호사님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36대 회장 한경진 기고

남가주 지역
강영일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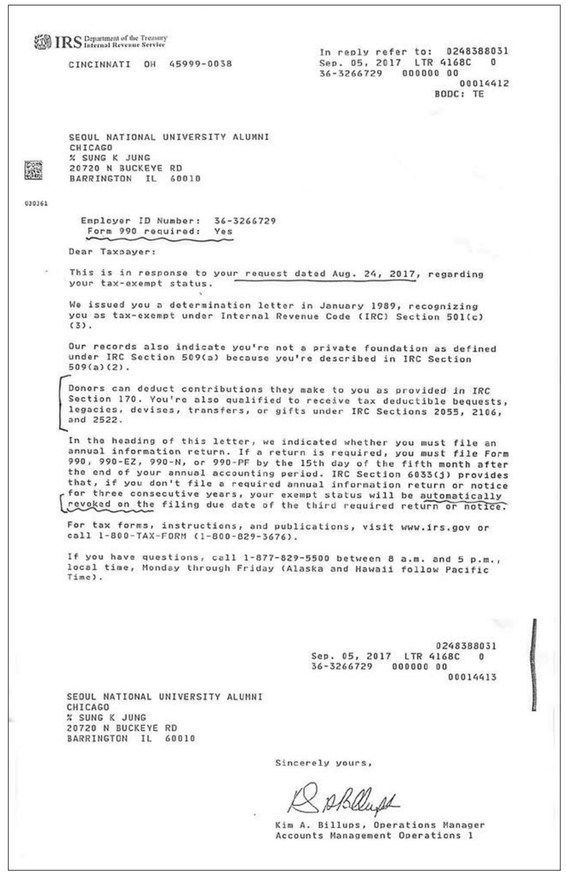
Seeking 1711, 24x32 in, 2017, oil on canvas

강영일 (미대 72) 동문의 개인전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Gallery Western에서 열리고 있다. 강영일 동문은 모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에서 회화를 수학하고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에서 교육을 수학했으며, LA를 중심으로 미국내의 타주들과 한국, 일본, 멕시코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번에 개인전을 열면서 강영일 동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추구 (seeking)

"지난 십여년 동안 극복(Overcome)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생존의 투쟁력과 역량의 모습을 은유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무를 상징적으로 작품을 해 오던 나는 2016년 언젠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또 찾으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작품에 담게 되었다. 변화의 필요성, 새로운 삶의 길, 고통과 아픔의 치유, 궁극의 목적은 행복을 찾고자 하며 각자의 갈망과 바램을 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난다. 만족치 못하면 그 긴 여행은 가고 또가고 끝이 없는 열망의 여행은 계속된다. 행복을 가지고도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또 끝이 없이 찾으러 떠난다.

추구 (Seeking)의 제목의 작품들은 다른 색깔의 층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 걸어 가는 모습을 상징화하며 표현한다. 몇가지 다른 재료와 프레스를 이용하여 선, 모양, 색깔, 형태 등을 종이나 캔버스에 담는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은 마치도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이어지며, 사람의 모양과 형태는 각자가 찾는 것이 다르듯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때로는 그림의 긴장감과 다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색깔 외에 다른 재료를 더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의 효과는 추상과 표상의 개념을 함축한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IR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INCINNATI OH 45999-0038

In reply refer to: 0248388031
Sep. 05, 2017 LTR 4168C 0
36-3266729 000000 00
00014412
BODC: T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CHICAGO
% SUNG K JUNG
20720 N BUCKEYE RD
BARRINGTON IL 60010

030261

Employer ID Number: 36-3266729
Form 990 required: Yes

Dear Taxpayer:

This is in response to your request dated Aug. 24, 2017, regarding your tax-exempt status.

We issued you a determination letter in January 1989, recognizing you as tax-exempt under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501(c)(3).

Our records also indicate you're not a private foundation as defined under IRC Section 509(a) because you're described in IRC Section 509(a)(2).

Donors can deduct contributions they make to you as provided in IRC Section 170. You're also qualified to receive tax deductible bequests, legacies, devises, transfers, or gifts under IRC Sections 2055, 2106, and 2522.

In the heading of this letter, we indicated whether you must file an annual information return. If a return is required, you must file Form 990, 990-EZ, 990-N, or 990-PF by the 15th day of the fifth month after the end of your annual accounting period. IRC Section 6033(j) provides that, if you don't file a required annual information return or notic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your exempt status will be automatically revoked on the filing due date of the third required return or notice.

For tax forms, instructions, and publications, visit www.irs.gov or call 1-800-TAX-FORM (1-800-829-3676).

If you have questions, call 1-877-829-5500 between 8 a.m. and 5 p.m., local time, Monday through Friday (Alaska and Hawaii follow Pacific Time).

0248388031
Sep. 05, 2017 LTR 4168C 0
36-3266729 000000 00
00014413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CHICAGO
% SUNG K JUNG
20720 N BUCKEYE RD
BARRINGTON IL 60010

Sincerely yours,

Kim A. Billups, Operations Manager
Accounts Management Operations 1

워싱턴 주 동창회

11월 세미나 개최

이번 11월 세미나는 11월 18일 (토요일) 김재훈 동문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후, Potluck 종강파티가 있었다.

이번 11월 세미나는 UW환경대학원에서 산림환경과학전공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노형민 (식물 02학번) 동문이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후변화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는 자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삶의 터전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오존층의 파괴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사막화가 촉진되고, 생태계 파괴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기후변화를 맞이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현 농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지 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해본다.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2018세미나 발표예정자:

▶ 1월 – 최종현 박사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TBD – TBD: 무인 비행체 드론 (Drone)의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TBD – 우장희 박사 (UW/FHCRC): 혈액암 (Leukemia) 연구 현황 ?

[기사제공: 김재훈]

제27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8년 6월 15일-17일

장소: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reet, Natick, MA 01760

1-508-653-8800

호텔 예약 등 자세한 안내는

다음 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가?
기후 변화를 맞이하는 식물

노형민 (식물 02)

동물과 다르게 식물은 종자로부터 발아하여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주어진 환경에 '던져지게' 된다. 식물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며, 따라서 이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생리기작을 세대에 세대를 걸쳐 발달시켜 왔다.

식물을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뉜다. 잎과 줄기가 지상부를 구성하여 대기환경의 영향을 받고, 뿌리가 지하부를 구성하여 토양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 습도, 일사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대기환경을, 수분, 양분, 미생물 등이 토양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요인이다.

잎의 기본적인 기능은 광합성 기작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데에 있다. 이는 크게 물을 분해하여 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인, 명반응과, 생성된 화학에너지를 이용, 기공으로부터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합성하는 과정인, 암반응으로 나뉜다. 이렇게 합성된 탄수화물은 잎의 가운데에 위치한 형성층의 체관을 통해 줄기를 타고 내려가 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에 전달된다. 뿌리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분/양분을 흡수하는 데에 있다. 뿌리 조직은 토양에서 이들을 채취하여 세포내 혹은 세포 외벽을 통해 가운데에 위치한 형성층의 물관으로 전달한다. 전달된 수분/양분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에 전달된다. 잎과 뿌리로부터 각각 전달된 광합성 산물과 양분은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여 식물의 생체중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특정 식물이 성장 및 발달에 알맞은 환경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식물은 곧 환경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각종 생리반응이 저하된다. 개체 수준에서 식물이 이러한 환경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순화' 작용이 일어나 스트레스에 내성 및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며 주로 2차 대사작용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이러한 환경스트레스가 여러 세대를 걸쳐 작용하게 되면 '적응' 작용이 일어나 기존 식물 개체군은 스트레스에 강한 개체군으로 진화한다. 예로, C3 식물(벼, 밀 등의 대부분 식용작물)의 이산화탄소 흡수 작용을 촉진하여 광합성 효율을 높이도록 진화한 C4 식물(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특정 식용작물)은 진화적 관점에서 잎의 환경 '적응' 과정을 잘 보여준다. 뿌리의 수분/양분 흡수 작용을 돕기 위해 형성된 토양미생물(근균, 뿌리혹박테리아)와의 공생관계 발달 또한 환경 '적응' 과정의 예이다.

이러한 식물의 환경에 대한 생리반응을 주도적으로 관찰, 응용해야 하는 학문이 농업이다. 현재 농업은, 첫째 기후변화, 둘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셋째 식생활습관의 변화라는 3가지 과제를 당면하고 있다. 2050년, 90억 인구의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작물의 생산성 증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위시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식물에게 큰 환경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농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보호농업을 통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대규모 농업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유전자공학을 통해 향상된 광합성 기작을 갖는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약 20%의 생산량이 증대된 콩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으로 공생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물의 수분/양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잘 알려진 근균류나 뿌리혹박테리아는 달리, 다양한 분류의 식물에 접종, 적용할 수 있는 내생미생물을 이용한 작물 스트레스 내성 증진 및 수확량 증대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후변화는 식물에게 환경스트레스를 줄 것이며 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식량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전자공학, 미생물학, 육종학, 농공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하여 문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장용복 (공대 58)

제일 훌륭한 오페라

지난 회에서 모짤트(Mozart, 1756-91)의 <돈 조반니(Don Giovanni)>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다. 돈 조반니는 유명한 바람둥이 돈판(Don Juan)의 이태리 이름이다. 오늘은 돈 조반니가 시골 처녀를 어떻게 녹이려 하였는지 또 그 처녀가 어떻게 꿈에서 깨어났는지 그들의 아리아를 들으면서 알아보자.

돈 조반니와 순진한 시골 처녀 제를리나(Zerlina)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제를리나는 농부 마제토(Mazetto)와 약혼한 사이다. 이 대화는 노래같기도 하지만 노래가 아니고 말하는 것 같지만 말도 아니다. 이런 것을 레시타티브(recitative)라고 한다.

사진: 제를리나(Teresa Berganza)가 반 죽음이 되어 온 마제토를 녹이고 있다.

(돈 조반니) 마침내 그 얼간이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 내가 잘하지 않았느냐 / (제를리나) 제 남편 될 사람입니다 / (돈) 나같이 정직과 품위를 긍지로 아는 귀족이 / 너의 그 황금빛으로 물든 고운 얼굴을 / 촌놈이 만지게 놔둘 줄 아느냐 / (제) 우린 결혼을 약속했는걸요 / (돈) 그런 약속 따윈 의미가 없어 / 넌 농사꾼 될 여인이 아니야 / 다른 운명이 기다린다 / 너의 반짝이는 눈과 아름다운 입술 / 나의 흰 손에 걸맞는 운명이 말이다 / 감촉이 크림 같구나. 장미 향기가 난다 / (제) 안돼요. 배신할수 없어요 / 나으리 같은 귀족은 여자에게 진실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 (돈) 평민들의 편견이다 / 시간 낭비하지 말자 / 이 순간 너와 결혼하고 싶구나 / 저 별장이 내 것이다 / 우리 둘만 있게 되 / 저기 가서 결혼하자.

돈 조반니와 제를리나는 이중창 '서로의 손을 잡고(La ci darem la mano)'를 부른다.

(돈 조반니) 서로의 손을 잡고 / 넌 그러겠다고만 해 / 여기서 멀지도 않아 / 같이 가자 / (제를리나) 그러고 싶지만 안돼요 / 행복해지겠지만요 / 가슴이 두근거려요 / 혹 저를 놀리시는거 아닌가요? / 저를 속이시는 거죠? / (돈) 날 따라와 / (제) 마제토에게 미안해요 / (돈) 네 운명을 바꿔주마 / (제) 이렇게 금방 무너지다니 힘이 다 빠졌어요 / (돈) 나만 따라와 / (제) 따라 가겠어요 / (같이) 같이가서 / 우리 순결한 사랑의 고통을 벗어 던져요.

이 이중창은 간단하고 매력적이며 잊지 못할 곡이다. 베토벤은 관악기로, 쇼팡은 피아노 곡으로, 베를리오즈는 기타곡으로 변곡했으며, 경연 대회의 지정곡으로도 자주 쓰인다.

제를리나는 3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져 침대로 끌려가 옷이 하나씩 벗겨진다. 이 때 돈 조반니의 옛 희생자가 쳐들어 온다. 제를리나는 부풀었던 희망, 귀족 부인이 되려던 꿈에서 깨어난다. 농사꾼의 아내가 적격임을 깨닫는다. 그동안 소홀하게 대했던 약혼자를 잃어버리면 안되겠다고 다짐한다. 질투로 꽉 차 있던 약혼자 마제토가 돈 조반니의 부하한테 얻어 맞고 반 죽음이 되어 찾아 온다. 레시타티브 대화가 시작된다.

(마제토) 날 좀 도와줘 / 내 머리, 내 등, 내 가슴 / (제를리나) 또 다친데가 어디예요? / (마) 여기 / (제) 다른 곳은요? / (마) 여기 또 여기 / (제) 다른 덴 괜찮아요? / (마) 다리도 좀 다쳤어 / (제) 정말 다행이에요. 나머지는 멀쩡하니까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분들을 위해 국산판 오페라 한 장면을 소개한다.

남편이 수영을 하다가 상어에 물려 해변가로 끌려 나온다. 부인이 남편을 붙들고 "당신 죽으면 난 못 살아" 하면서 곡을 시작한다. 슬쩍 아래를 보니 거시기가 없는 것이다. 상어가 물어 버린 것이다. 곡이 통곡으로 변한다. 대사는 "당신 살아도 난 못 살아" 로 변한다.

각설하고, 대화가 끝나고 제를리나는 쓰러져 있는 마제토를 안아준다. 그리고 아리아 '찾아 줄께요(Vedrai carino)'를 부른다. 돈 조반니한테서 배운 수법을 이제는 약혼자 마제토한테 적용한다.

사랑하는 그대여 / 질투심을 버린다고 약속하면 / 제가 좋은 약을 드릴께요 / 조잡하지 않은 천연 약재로 / 약초 상도 모르는 비밀의 약이지요 / 확실한 진통제를 투여해 드리지요 /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치료해 줄께요 / 어디다 두었는지 알고 싶죠? / 어디다 뒀드라? / 내 가슴 뛰는 걸 느껴보아요 / 여길 만져 봐요 / 바로 여기예요 / 여기를 만져 보아요.

에로틱한 장면이다. 마제토는 다쳐서 천근만근이지만 침실로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곡은 <리골레토>의 '사랑스러운 이름'(Caro nome)과 함께, 선생님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 오는 학생들 한테서 듣고 싶어하는 곡 중 하나이다. 멜로디와 리듬이 간단하기 때문에 부르기가 더 힘든 것이다.

베토벤은 <돈 조반니>가 제일 훌륭한 오페라라고 했지만 그 내용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피가로의 결혼>을 더 좋아하였다. <보바리 부인>의 작가 플로베르는 하느님의 3대 걸작은 바다, <함렛>, <돈 조반니>라고 했고, 오페라 평론가 스투알트(Henry Stewart)는 영화라면 <시민 케인>, 교향곡이라면 베토벤의 9번, 문학으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오페라에서 <돈 조반니>를 꼽았다. (계속)

장소현 (미대 65)

예술은 구원인가?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테니까."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절절한 마음이 잘 읽히는 고백이다.

예술은 구원인가? 아주 오래 되고 근본적인 물음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만드는 사람에게나 감상하는 사람에게나 구원일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구원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술도 당연히 그렇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지성인들이 미술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를 들어, 재일교포인 서경식 교수나 강상중 교수, 재미 교포인 마종기 시인 등등... 공교롭게도 모두 해외동포들인데, 그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공감이 된다.

"나에게 예술은 숨막히는 지하실에 뚫린 작은 창문 같은 것이었다. 이제 와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작은 창문은 벽 높은 곳에 있어서 바깥 경치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색깔 변화나 공기가 흐르는 기미는 느낄 수 있었다. 손은 닿지 않고, 창문으로 도망칠 수도 없지만, 그 작은 창문 덕에 살아 있을 수 있었다."-서경식 <청춘의 사신> 머리말 중에서

"하지만 아무리 미약하고 하찮을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빛이 분명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희미한 빛으로 눈을 돌려 바로 거기에서 희망을 끌어내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뒤러의 <자화상>을 만나고 나서야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어슴푸레한 빛으로부터 어떤 희망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강상중 <구원의 미술관> 중에서

"1960년대 중반이었다. 수련의로 고용되어 미국에 온 나는 세상에 이런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때 그나마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은 수많은 좋은 미술관들과 음악공연장이었다. (...) 예술 감상은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아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있었다."-마종기 시작(詩作) 에세이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 <귀를 자른 자화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의혹'으로 임기 중에 사퇴당한 후 끓어오르는 울화를 그림을 그리며 극복했다고 한다. 미술작품을 모으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수집가도 적지 않다.

미술치료가 관심을 모으는 것도 미술작품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미술이 구원까지는 아니라 해도, 고달픈 삶을 어루만져주는 위로는 충분히 될 것이다. 그림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극작가, 미술평론가

한반도의 위기

최용완 (공대 61)
논설 위원

남한 동포의 지성인은 북한 동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손길을 뻗어 끌어 올릴 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제 압박에서 풀려난 한반도는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한국전쟁을 겪었다. 남한의 자유민주를 보호하려 한반도에 찾아 온 미군 5만여 명의 희생자를 냈고 북한 공산국을 보호하기 위한 중공군은 13만 여명의 희생자를 내어 이 땅 어느 곳에 묻혀 있다. 2017년 오늘, 남한은 세계첨단의 경제국으로 성장하여 앞을 달리는데, 40년 전에 남한보다 더 잘 살던 북한은 더욱 가난하고 세상에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로 치닫고 있다.

사람이 사는 즐거움은 먹고 싶은 것 잘 먹고, 하고 싶은 것 자주 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보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하고 싶은 말 나누는 자유스러움에 있다. 북한 동포는 그런 즐거움을 모르고 산 지 반세기가 넘었다. 일하든, 안 하든 싫든 좋든 직업은 무조건 주어 아침에 출근만 하면 한없이 적게 주는 노임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준다. 공짜 강냉이 죽이라도 평등하게 먹여주니 고맙기만 하다. 닭장 같은 집이라도 국가에서 구해주고 나라에서 교복도, 교과서도 주고 모두 공부시켜주기에 남한처럼 교육비 걱정을 할 일이 없고 아프면 누구나 치료해주는 것처럼 해주기에 병원 걱정이 없다.

누가 나라의 수령이 되던 별 상관이 없다. 오직 배불리 먹여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속이면 그만이다. 인민이 인권을 빼앗겼기에 민주화 투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능한 노예로 그냥 사는가 하는 생각조차 할 줄 모른다. 반정부 민주화 투쟁이란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치밀한 감시체제 속에 반정부 저항을 생각만 해도 들키면 공개처형으로 목숨을 잃는다. 민주, 자유, 인권이란 단어가 없고 노예근성에 묶여 가련하게 살다 죽어간다.

남한이 세상에서 잘사는 나라라고 소문 듣고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하면 띄놈들 한태 처자식과 재산 빼앗긴다. 구사일생 남한에 이르렀다 해도 발디딘 첫날부터 간첩으로 의심받고 푸대접에 시달린다. 재활직업을 얻어 일하는 환경은 좋았지만,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 사회였기에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이기지 못하면 거지 되어 굶는 뜻밖의 처지에 견딜 수 없다. 남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 자라나 경쟁 전문가들이지만 북한에서는 하는 일만 따라하는 버릇으로 경쟁해보지 못했다. 남한 자본주의 경쟁 산업은 승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어 돈 벌게 해주고 돈이 돈을 벌어온다. 하지만 물질적 공짜 즐기는 만민평등 북한은 세계 경제의 바닥에 떨어졌다.

북한에서는 몇몇 노동당 간부 자리 꿰차고 아침 잘하면 고급 승용차 타고 큰 집에서 자손들까지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 하지만 딴짓 할까 봐 24시간 감시를 받고 의심받으면 공개처형으로 총이나 대포 연기 속에 사라진다. 하라는 말만 잘 듣고 기계처럼 따라 하면 공짜로 먹고 자고 만민 평등이다. 북한 인민이 사회적 변화를 꿈꾼다 해도 독재를 보강하여 혜택을 누리는 소수 권력자들의 눈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간부 자리 꿰차고 평생 공짜 자동차에, 공짜 큰 집, 먹을 것 걱정 없고 자손들까지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다음 간부 자리를 약속하는 위치에서 누가 그 독재를 반대하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들 숨은 세력은 김정은 자신을 길러준 숙부를 제거하는 용단을 내도록 하고 이복형제까지 암살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 독재는 인민이 가난할수록 더욱 독제에 의지하고 강력한 군사체재만이 더욱 복종하는 체계를 유지하기에 강력한 무기로 인민을 위협하고 남한과 일본을 위협하는 듯 인민의 복종을 꾀한다. 모든 인민은 세상을 모르고 수백 개의 김일성 김정은의 동상들과 김정은 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믿게 하여 순종하는 독제권위주의 선택밖에 없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북한의 역사적 영역은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북한을 티베트처럼 자국의 국토팽창정책의 하나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을 보호하고 북한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인민의 생명 줄이 중국에 의존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은 북한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중국의 꼼수를 도와줄 뿐이다. 북한은 중국의 동아세아 주도력 성장에 끼어들어 중미 경쟁 사이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태도는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위신을 세워준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시작했던 이래 북한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태도는 중국과 소련이 웃고 보는 재미있는 불장난이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이라크의 후세인이 며칠 사이에 사라지듯 북한도 당할 수 있음을 모두가 상상할 수 있다. 북한을 구하려고 중국이나 소련이 미국과 전쟁하러 나서지도 못 함은 서로가 핵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남한 국민이 북한 독재를 수용하지도 못함을 잘 알고 있기에 남한 동포를 핵무기 불바다로 쓸어버리는 방법을 구상하기도하고 월남의 적화통일을 꿈꾸기도 한다. 남한의 촛불집회는 노무현 반미교육과 남한에 잠입한 북한세력의 연합이 통일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통일 이상주의와 화합하여 박근혜를 앞세운 보수진영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남한의 현실은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나라를 걱정해서 쓴 소리 하고 욕을 하던 애국자들은 북한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감방 가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로 바뀌고 있다. 대기업가들은 회사가 국유화 위기에 처하고 군 장성들은 정부의 눈치 보기에 정신들이 없는 경향은 북한을 닮아가는 꼴이다. 북한은 인민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노동당과 수령을 100% 지지하는 장애인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듯 보이지만 이제는 정보시대가 북한에도 스며들어 인민이 깨어나고 있어 삼대 독재가 막장에 이르고 있다. 북한 인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의 드라마와 케이 팝을 보며 남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위기이다.

남한 동포의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미국을 상대하여 위협과 공포를 불장난하는 북한의 태도가 심할수록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한 국회에서 한국을 칭찬하며 미국이 북한을 힘으로 저지함을 정당화하는 경고를 했다. 전쟁의 먹구름은 한반도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아무도 또 하나의 6·25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 독제 공포 정치에서 인민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인민에게 있다. 자유를 회복하고 남한의 동포와 융합되는 과정에 동독과 서독이 겪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하나 되어 세계의 앞을 달려가는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반세기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오, 하늘이여 우리를 도와주서서.

고독한 산책자의 명상

민경훈 (법대 78)

1845년 7월 4일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을 당긴 매사추세츠 콩코드 주민들이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을 때 청년 백수 한 명이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미국 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인근 월든 호수가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고독한 산책자의 삶을 시작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초월주의자 문필가의 한 사람인 헨리데이빗 소로가 그다.

'자연 애호가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월든'은 27살 난 소로가 이곳에서 2년간 생활하며 느끼고 경험한 바를 적은 명상록이다. 그는 이 책 앞머리에서 "나는 생의 핵심적인 것들만 대하며 사려 깊게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 죽음을 맞을 때 내가 헛살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이라고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며 자신은 "깊게 살며 생의 골수를 모두 빨아 먹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히고 있다.

소로가 살던 19세기 중반은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며 영토적으로 비약적으로 팽창했을 뿐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로 일반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 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신천지 개척을 위해 서부로 떠나거나 새 산업 분야에 뛰어들어 부를 쌓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나타난 초월주의자(Transcendentalist)들이다. 에머슨을 필두로 한 이들은 맹목적인 부의 추구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며 명상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삶의 참된 목적을 찾을 것을 촉구했는데 그의 후배이자 제자인 소로는 이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는 대부분 혼자 있는 것이 건강하다고 본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도 함께 있으면 곧 지친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하며 고독만큼 친근한 벗은 없다"고 그는 적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 담을 쌓고 산 은둔자는 아니었다. 그는 밀린 6년간의 인두세를 내라는 세금 징수원의 독촉을 받자 불법적인 멕시코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제를 용인하는 연방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는 바람에 풀려나기는 했으나 이 때 경험은 그가 나중에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란 글을 쓰는 계기가 된다. 그는 "불족종이야말로 자유의 기초며 복종만 하는 인간은 노예"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 글은 당시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00년이 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있던 간디의 눈에 띄어 인도 독립 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60년대 미국 민권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이 글을 읽고 "불의한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불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 환경 보호 운동의 고전인 '조용한 봄'의 저자 레이철 카슨은 "나는 자기 전 소로를 읽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월든에 살면서 철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관한 기록을 남긴 소로는 미국 환경 보호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때로는 고독한 산책자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월든 호수가 옆에는 작년 새 단장하고 문을 연 소로 기념관과 서점이 있다. 기념관에 전시된 기념물들은 이달 초 처음 설치된 것이라는데 모두 반짝반짝 빛난다. 소로의 뜻을 받들어 친환경 공법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00%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하며 목조는 거의 대부분 인근 숲에서 자란 것을 이용했다고 한다.

건물내 상영실에서는 간디의 손자가 나와 소로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설명하며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네가 스스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는 간디의 말을 들려준다.

소로는 "깨어 있는 자에게만 해는 뜬다. 새벽은 더 온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일뿐"이라고 '월든'의 끝을 맺었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다. 44세를 일기로 그가 간지 150여년이 지났지만 그가 사랑하던 월든 호수는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롭다. "너는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그의 목소리가 숲가에서 들리는 듯 하다.

작은 동물 농장

김수영 (사대 57)

두 외손녀가 한 살, 세 살일 때 4년 동안 키웠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힘드는 줄 도 몰랐고, 그러는 동안 정이 푹 들었다. 지금 다시 키우라면 못 할 것 같다. 외손녀들이 미시간 주로 이사를 간 후, 보고 싶어도 워낙 멀어서 방문할 엄두를 못 내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두 녀석이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면서 나를 보러 이곳 가주 오렌지카운티까지 찾아왔다. 보지 못했던 몇 년 사이에 꼬맹이적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어엿한 숙녀들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두 손녀들을 데리고 몇 날 며칠을 함께 관광을 했다. 디즈니랜드와 샌디애고에 있는 씨월드 등 여러 곳을 구경 시켜주었다. 하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큰 녀석이 말을 타고 싶다고 해서 집근처에 있는 승마장으로 데려가서 등록을 했다. 일주일에 두 번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승마장이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자동차에 태워 승마장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해야만 했다. 훈련을 받는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전혀 지루함이 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수 십 마리의 말을 키우는 승마장은 훈련생들로 늘 붐비고 있었다. 초보자가 있는가 하면 노련하게 말을 타는 승마자들도 있었다. 훈련이 끝날 때 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퍽 재미가 있었다. 말이란 동물이 참 영특한 동물이었다. 조련사가 눈가리개를 씌우고 어떤 목표물을 앞에 갔다 놓고 말 한마디로 빙빙 돌게 하는데 눈으로 보고 걷는 것처럼 잘 돌아 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앞 발로 발길질을 하는데 나는 놀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련사에게 물었다. 배가 고파 먹이를 달라는 몸짓이란다.

한 번은 날씨가 더워서 양산을 쓰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조련사가 양산을 치우고 지나가라고 했다. 갑자기 이상한 물체를 보면 말이 놀래서 껑충껑충 뛴다는 것이다. 말은 몸집이 큰데도 겁이 많은 동물이란 것을 알았다. 나는 동물 중에 개를 무척 좋아 하지만 말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한다. 서부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라든가 죤 웨인 등 명배우들이 푸른 평야와 초원을 달리면서 종횡무진으로 펼치던 명연기를 기억한다. 말이 아니면 그들의 연기가 그처럼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곤 했다.

야생마는 야생마대로 멋있고 준마는 준마대로 멋이 있다. 달릴때의 그 늠늠한 위용은 어떤 동물에도 비교가 안된다. 특히 며칠전에 서거한 찰톤 헤스톤이 주연한 '벤허'(Ben Hur)의 적과의 마차 경주는 이 영화의 백미라 할수 있다. 찰톤 헤스톤이 이 장면에서 명연기를 보여 줌으로 일약 대 스타가 되어 이카데미 주연상을 휩쓴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리라 믿는다. 말이 아니였으면 이런 행운이 그에게 주어 졌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승마장에는 말 뿐만 아니라 염소, 칠면조, 오리, 닭, 토끼, 고양이, 개 등여러가지 동물들이 있었다. 고양이와 개만 풀어 놓고 다른 가축들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키우는데 가끔 풀어 놓기도 하면 사방에 늘려 있는 먹이 때문에 서로 먹으려고 싸울 때가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먹이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번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동물 중에 제일 키가 큰 숫염소가 배가 고픈지 처량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승마장 한 켠에 놓여 있는 잘라놓은 토막 당근을 먹이로 줄려고 두 손에 잔뜩 들고 염소에게로 가 보았다. 미국 염소는 한국 염소하고 달라서 뿔이 없었다. 뿔을 잘라 버렸는지 모르겠다. 갈색 염소인데 귀는 흰색이고 손바닥 길이 만큼 긴 귀가 축 늘어져 있는 아주 귀여운 염소였다. 나는 콧등을 여러 번 쓰 다듬어 주었다.

염소는 내가 가까이 가니까 울타리에 껑충 뛰어 올라 발을 디디고 서서 먹이가 생각나서 인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먹이를 입에 넣어주니 얼마나 잘 먹는지 계속 입에다 넣어 주었다. 다른 가축들은 키가 큰 염소에게 기가 죽어 옆에 얼씬도 못하고 칠면조는 뒤에서, 오리와 닭들은 멀찌 감치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염소 입에서 어쩌다 당근이 땅으로 떨어지면 두 번째로 키가 큰 칠면조가 달려 들어 얼른 삼켜 버리는 것이다. 오리들과 닭들은 먹이를 얻어먹을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가 않았다. 칠면조가 앞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먹이를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된 오리와 닭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나는 뒤쪽으로 먹이를 던저 주지만, 칠면조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먹이를 가로채 가는 바람에 오리와 닭은 속수무책이었다.

저 힘 없는 녀석들에게도 먹이를 좀 먹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갑자기 수탉 두 마리가 싸움이 붙어 뾰족한 부리로 서로 쪼아 대면서 푸드득 푸드득 날다가 서로 맹공격을 하였다. 처음에는 힘이 막상막하였는데 대세가 기울어져 한 놈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한 녀석이 계속 공격을 해댔다. 나는 도망 다니는 놈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 싸움을 말려 볼 방도를 찾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리 두 마리가 넓적한 부리로 공격을 하는 수탉을 따라 다니면서 연거푸 쪼아대는 것 이 아닌가! 그 닭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상대방 닭 공격을 멈추고 도망을 가버렸다. 드디어 싸움은 막을 내렸다.

토끼장 안에 있던 토끼들은 구경꾼이 되어 눈이 휘둥그래져 놀래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오리 두 마리가 한 팀이 되어서 약자를 돕기 위해 강자를 공격했고, 약자를 위기일발에서 구출해 낸 용감무쌍한 투사가 된 셈이었다. 마치 007 첩보영화 공격작전을 보는 것처럼 스릴이 있어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동물세계에서도 의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인간으로써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다..

몇해전 겨울, 경남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겨울철 그 먼 시베리아 바이칼호수에서 우리나라까지 수만리를 집단으로 날아와서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는 청동오리를 보았다. 수만 마리의 오리가 군무를 하며 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새중에 오리가 참 영특한 동물이란 것을 처음 깨달았다..

죠지 오웰(George Orwell) 이 쓴 '동물농장'(Animal Farm)이 생각났다. 1945 년 출판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농장 안에 있는 동물들이 폭군 농장주를 대항해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묘사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물론 내용은 쏘련의 침략주의로 인한 전제주의를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썼지만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

동물의 세계는 참 재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각각 다른 DNA를 디자인해서 살아가게 만든 창조주의 설계 솜씨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마장 훈련이 끝난 다음, 손녀들의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월트 디즈니사가 만든 동물 만화영화 명작 한 편을 무료로 관람하고 가는 기분이었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다.

배움의 병리학

- 아는 것도 병이련가 –

이원택 (의대 65)

인간은 호기심이 많다. 뭐든지 알고 싶어 한다.

공자는 논어 1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 해서 배움의 기쁨을 피력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무지를 한탄했고 우리 속담에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란 말이 있다. 반면에 진시황은 책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시켜버려 자기보다 많이 아는 짓을 원천봉쇄 했고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 폴 포트도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수십만의 지식인을 학살했으며 많은 문화에서 여성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가르치기를 억제해 왔다.

세상에는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배우나 마나인 것도 있고 또한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배움이라는 것도 칼날의 양면 같아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예 안 배울 수도 없는 것이 배움이야말로 생존경쟁의 필수조건이고 배워야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때문이니 선한 마음으로 배움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원칙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배우는 묵시적인(implicit)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명백한 근거에 따라 배우는 명시적(explicit) 학습이어서 전자는 무의식적, 무조건적이고, 후자는 의식적이며 조건적이다. 과학적으로 학습이론을 전개하려면 이상의 분류를 따라야 하겠으나, 우리는 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신의학의 통념적인 분류에 따라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분류해 보기로 했다.

▲ 생리적인 학습

러시아의 생리학자 Pavlov의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에서 개한테 종소리를 울리면서 먹이 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질질 흘린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의 김유신 장군도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그 양반이 혈기 방장했던 젊은 시절에 매일같이 방과 후에는 단골 기생집을 찾아갔더니, 얼마 후에는 고삐를 잡아주지 않아도 말이 알아서 그 집으로 모셔주더란다. 아차! 하고 정신을 차린 우리의 김유신 장군은 단칼로 자기 애마의 목을 치고 주색을 끊었다는데, 이때 그 양반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왜 말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했더라면, Pavlov보다 1300년이나 먼저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또한, 그때 왜 자신이 자신을 채찍질 못 하고 애매한 말을 베었는가를 성찰해 보았다면, Freud보다 1,300년이나 앞서 대표적인 방어기제 "전치(displacement)"를 발견해 냈을 텐데, 역시 김유신 장군은 글쟁이(문관)가 아니라 칼잽이(무관)였기 때문에 그 대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어 낸 것이 아닌가. 하긴 노벨상보다야 삼국통일이 백배 나을지니, "깅께, 칼잽이가 글쟁이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뵈-"

학습이란 한마디로 특정 상황에서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뇌의 특정 부분의 회로 형성(net working)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뇌의 심층에 찍힌 프로그램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배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감작작용(sensitization)'이다.

학습의 첫 단계인 연상작용은 어떤 일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고전적 조건화로, 이는 모든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초로서, 번개의 무서운 파괴력을 보고 베자민 프랭클린은 가느다란 전깃줄로 만든 연을 날려 번개의 정체가 전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피뢰침을 고안해서 인류를 보호했으며, 토머스 에디슨은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음극과 양극을 충돌시켜 세상을 밝혀주는 전등을 발명해 내지 않았는가?

간단하게 조건 반사(conditional response)라고도 불리는 이 고전적 조건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다. 사람도 개와 같이 공복 때 음식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혈중의 insulin이 올라가므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후 6시 저녁 끼니때가 되면 음식이 안 들어가더라도 혈중의 insulin이 올라가서 혈당량을 내려주기 때문에, 시계가 없더라도 사람이 "허기"가 지는 것으로 몇 시쯤인지 알게 된다.

당뇨 기가 있는 한 친구는 저녁 6시가 되면 속이 헛헛해서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고 알코올 중독 끼가 있는 저자는 그때가 되면 속이 출출해지기 시작한다. 여름철 오후에 할인 골프를 칠 때 그 친구는 오렌지 쥬스를 마시며 끝까지 치고 저자는 9홀만 돌고 클럽하우스에 가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 골프 실력이 비교가 안 된다. 학습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끈기"이다.

이때 매일같이 반주를 계속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나 반주 대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술 대신에 기도가 "고파"진다. 이것은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는 한 방편이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거나, 기도하기 전에 술을 마시는 사람, 또는 저자같이 술을 마시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도를 할 때는 오로지 기도만 드려야지 왔다리갔다리 하다간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학습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집중력"으로 이는 잡생각을 싹 쓸어버리는 일이다.

Pavlov의 실험에서 나중에 음식도 주지 않으면서 종만 계속 울려대면, 얼마 후에는 개도 알아차리고 종이 울려도 침을 흘리지 않게 되는데 이를 소멸(또는 소거 extinction)이라고 한다.

이 이원택 박사가 마누라가 한국 나간 열흘 동안 저녁을 매일같이 밖에서 때우느라 반주로 소주 한 병씩을 까고 왔더니, 그 후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식탁에 앉으면 배는 고프지 않은데 속이 출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애절한 눈빛으로 마나님한테 싸인을 보내는데, 이 무정한 어부인께서는 아랑곳없이 일일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가족들의 건강, 친구나 동료들은 물론 하다못해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까지 빌면서 장장 15분간이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술이 고팠던 배가 서서히 밥이 고픈 배로 변해가곤 한다. 이만하면 목사들이 왜 기도를 오래 하는지 이해가 가는가?

그런데 6개월 후에 마나님이 다시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다시 밥집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식탁에 앉자마자 그동안 소멸된 줄 알았던 그 몹쓸 술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때 밥보다도 술이 더 고파지는 것은 마누라가 없어서 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젊고 발랄한 그 식당 종업원이 술맛을 돋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좌우간 6개월간이나 술을 끊었다가도 식당 아가씨의 다정한 눈빛 한 번에 그동안 공든 탑이 좌르르 무너지나니, 이는 한 번 뇌에 깊숙이 각인된 추억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심층부로 가라앉았다가 대뇌피질에 틈만 생기면 다시 뚫고 올라오므로, 결국은 많은 정신병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단지 부분적 회복(partial recovery)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체 재활 모임인 AA(alcoholic anonymous)에서는 한 번 중독자는 평생 중독자라고 해서, 30년 전에 술을 끊었어도 아직도 회복하고 있다는 뜻의 recovering(not recovered) alcoholic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한눈을 팔지 못하게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AA 모임에 참석하라고 한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원택 박사가 예쁜 아가씨를 보면 한 잔 생각이 나는 버릇이 지속되어, 밥집보다는 예쁜 아가씨들이 더 많은 술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을 연속적인 자극이라고 하며, 이때 한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옮겨진 경우에도 같은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자극의 일반화(stimulus generalization)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사물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고등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으로, 예를 들면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있거나 건널목에 stop sign이 붙어 있거나 차선 위에 stop이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는 일단 차를 멈추고 보아야 한다.

한 단계 더 올라간 학습활동으로 서로 같은 것 같으면서도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을 발견하는 식별력(discrimin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한, 차를 직진하지는 못하지만, 우회전할 때는 잠시 쉬고 진행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의 모든 길에 stop sign이 있으면 일단정지 후 살펴보고 직진을 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식별력(분별력이라고도 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인데, I.Q.가 두 자리 숫자 밖에 안 되는 이 이원택 박사는 밥집, 술집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밤거리를 헤매고 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밥을 보고 배가 고파지는 무조건 반응(unconditional response)과 예쁜 여자를 보면 술이 고파지는 조건 반응(conditional response: 왜냐하면 술을 많이 팔아주어야만 몸도 팔아주기 때문에)을 구별해야 되는데, 저자와 같이 정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장군(김유신)이 못되고 한낱 졸개로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다.

▲ 심리적 학습

미국의 심리학자 Thorndike(1874-1949)는 고양이를 안에서 빗장을 걸어 닫아놓은 상자에 놓아두고 관찰해 본 결과, 이놈이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흔들어 보다가(trial and error learning: 시도와 과오를 반복) 마침내는 빗장을 올리고 탈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쥐를 쇠창살로 만들어진 우리에 넣어놓고 전기충격을 가할 때 삐죽 나와 있는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가 단절되는 장치를 하면, 몇번 당하고 나서는 전기신호가 가기가 무섭게 지렛대를 눌러서 충격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행동을 도구를 써서 조정할 수 있다는 모든 행동심리학의 모체가 되는 학설이다.

그 후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Skinner(1904-1990)는 쥐 한 마리를 막대기가 붙어있는 상자에 가둬놓고 보았더니, 이놈이 그 안에서 배가 고파서 지랄발광을 하다가 우연히 그 막대기를 건드리니까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다음부터는 배가 고플 때마다 그 막대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도구를 강화재(reinforce)라고 하고 이때 받아먹는 음식을 보상(reword)이라고 한다.

강화(reinforcement)에는 쥐새끼가 지랄발광을 하면 음식이 안 나오고 얌전히 있어야 음식이 나오는 긍정적(+) 강화와, 전기충격을 피하려고 고양이가 빗장을 열고 도망을 치는 부정적(-) 강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화의 이론이며, 현재에도 많이 쓰이는 행동수정(behavioral modification) 요법의 근간이 되는 학설이다. 혹자는 부정적 강화는 어떤 원하지 않는 반응을 약화시키기 위한 괴로운 자극이고 처벌(punishment)은 어떤 반응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다 그것이 그것이다. 다만 행동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데서 온 양심의 가책 때문에 처벌이란 말 대신 '부정적 강화'란 고상한 말을 썼으리라 짐작한다.

세계 1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세계의 패자로 부상함에 따라 과학의 무대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내면세계를 연구하는 자기심리학이나 분석심리학이 인간의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을 중시하는 행동심리학(behavioral psychology)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 문명이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처럼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에 좌우되는바, 연구하는 데도 돈이 들지만 선전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즉 저자의 책이 빛을 못 보게 된 것은 순전히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흥청망청하던 경기를 타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미국사람 Watson(1878-1958)은, 1920년에 11개월짜리 어린애한테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않았던 흰쥐를 보여주면서 계속 벼락 치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그다음부터는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흰쥐만 보면 공포에 바들바들 떠는 것(classical conditioning)을 보고, 나중에는 기고만장하게 자기에게 심신이 건강한 정상애를 주면, Skinner 성님이 고안해낸 operant conditioning(조작적 조건화)을 적용해서, 의사건 변호사건 예술가건 정치가건 마음대로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를 탕탕 치고 다녔다.

모든 것이 틀에 잡히고 고리타분한 봉건주의와 구교를 배척하고 자유의 땅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마음껏 활개를 펼쳐보려는 개척정신이 투철한 신교도(protestant)들한테는 여간 솔깃한 말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행동심리학의 발달은 자본주의 토대 위에,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것에, 질보다는 양, 이론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양키 문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정신유전학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애는 자라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라고 세 살 때부터 피아노 독선생을 따라 붙였는데 자라보니 장사꾼이 되어있고, 또 어떤 애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라고 다섯 살 때부터 웅변대회에 끌고 다녀도 결국은 시인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바야흐로 궁지에 몰린 행동심리학의 왕초(god father: 알카포네 비슷하게 생겼음) Watson 두목께서는 골치 아픈 심리학을 때려치우고 유수한 광고회사를 차려 떼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의 동료들이나 후학들이 그가 변신을 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아마도 이 이원택 선생도 골치 아픈 정신과를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소설가가 되었다면 더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조작된 인간 또는 계획된 사회(planned society: 역시 또 하나의 극단주의자인 Skinner가 만들어 낸 말)라는 말은 쑥 들어가고, 유전학에 기초를 둔 복제인간(clone)이나 생태학에 기초를 둔 세계화(globalization)란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 사회적인 학습

사회적인 학습이론의 시초로는 오스트리아의 생태학자 Lorenz의 각인(imprinting)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모양으로, 연못에 떠 있는 오리새끼들은 항상 제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이것은 모든 동물이 갓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 이외에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대방을 모방(modeling)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학설이다. 오리 새끼가 처음 깨어나서 최초로 본 커다란 움직이는 물체는 아마도 제 에미일 것이므로 에미가 움직이면 자기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어린 놈들이 과연 제 에미인지 알고 따라다니는 것인가 하고 의심한 Lorenz는 갓 부화된 오리 새끼들한테 어미를 제쳐놓고 자기 자신이 그들을 유도하였더니, 그다음부터는 어미를 갖다 놔도 어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현상은 오리 새끼가 아주 어렸을 때는 통하지만 그놈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통하지 않으므로, Lorenz는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뇌에다 낙인찍는 것이 잊어먹지 않는 비결이라고 그랬다.

상대방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일은 인간에게서도 어릴 때 말을 배우거나 어떤 동작을 개발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으로 대체로 어린애는 부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학습을 시작하고 있다. 저자가 젊었을 때 딸내미가 얼마나 귀여운지 항상 "요놈의 새끼"라고 부르던 중 하루는 또래들이 몰려와서 같이 숨바꼭질한 적이 있었다. 이때 저자는 애들 애를 먹이느라고 차고에 있는 소금 통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마침 6살 난 딸애가 술래가 돼서 산지사방 찾다가 안보이니까, "요노무 새끼가 어드메 자빠졌나." 하는 것이 아닌가(그려서 애들 앞에서는 숭늉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어--)?

Lorenz는 나중에 물고기나 새 떼들이 자기 구역(territory)을 사수하는 것을 보고 인간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에 의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이 침범당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보았다. Lorenz 자신은 무력에 의한 구역의 확보나 종족의 선택에는 우려를 표시했으나, 일차대전 패전 후에 절망에 빠져있던 독일 민족을 단합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Hitler (그의 의부와 그를 미술학교 입시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에게 그의 사상은 정말로 가뭄에 단비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치 군국주의의 모토는 우수한 국민이 우수한 지도자를 따라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Eugent(우수한 학생)라는 학도병을 만들어 마치 오리새끼가 떼거지로 Lorenz를 따라간 것처럼 Hitler를 따라 세계를 정복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Nazi 정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또한 열렬한 지지자였던) Lorenz는 이차대전 패망 후 일급 전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까지 했으나 정치와 학문을 구분한다는 방침에 따라 마침내 1973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이 사회적인 학습은 군대에서 신병훈련을 시킬 때도 유감없이 써먹는바 숙달된 조교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을 세고 나서 목표물을 향해 던지는 것을 보고, 결국은 자기도 그 조교와 같은 군인으로서 그 조교가 하는 일을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정신요법의 하나인 집단치료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본받아 행동함으로써 금연이나 체중조절, 공포증 치료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 인지적 학습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난감한 경우 중의 하나가 바로 인지(cognition)와 인식(perception)인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 perception은 지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각은 여러 가지 인지작용 중의 일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 것이다. 개념이다. 한 송이의 장미꽃을 보고도 어떤 이는 화려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우아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요염하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여자를 고를 때도 "제 눈에 안경"(beauty is in the eyes of behold)이란 말도 있다. 즉 세상만사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백 번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지각작용에는 과거의 경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서 장미꽃을 자주 받아본 사람은 장미꽃에서 모성애를 느끼고 주로 애인한테 장미꽃을 받아본 사람은 장미꽃에서 색정을 느낄 것이며 저자같이 여자들한테서 흑장미만 받아 본 사람은 장미꽃에서 배신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고전적 조건화도 인지적 개념 없이는 설명하기 곤란한데 1967년 Robert Rescorla 는 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Pavlov 실험 때와 같이 종이 울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었더니 쥐들은 종이 울리면 공포에 떨게 되고 두 번째는 종이 울리거나 말거나 무작위로 전기 충격을 주었더니 이놈들은 종이 울릴 때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전기 충격이 올지 모르므로' 고요한 상황에서 제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첫번째

(22p 상단으로 계속)

김영덕 (법대 58)

첫 사랑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당연한 자연의 섭리다. 첫사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과연 맞는 말일까 하고 상념에 잠기어 본다. '지나간 일들은 모두 아름답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기도 하지만, 학창시절 때의 연애 특히 첫사랑의 추억은 아름답게 만 느껴진다.

법대생은 처음부터 고시공부에만 매달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1학년 시절에는 교양학부 과정을 이수하면서 폭넓은 지식과 인생경험을 쌓으며 자유분방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낸다. 나도 1학년 때, 타 대학의 남녀 여러 동급생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활발한 과외활동을 하였다.

친한 친구 7명이 주축이 되어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만이 중심이된 동아리를 만들었다. 심우心友회, '마음의 벗'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시작하였다. 심우회는 한 달에 2번 모임을 갖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취미생활의 나눔을 통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게 되었다. 우리 발기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후배회원들은 계속 이 모임을 이끌어 갔다. 선배회원도 가끔 초청도 하여, 참석하는 길고도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갔다.

기억에 남아있는 토론제목 하나는 '이성간의 우정은 지속 가능한가?' 이었는데 막상막하의 열띤 공방으로 결론 못내고 폐회한 때도 있었다. 회원 중에는 부부회원도 사회에 나온 후 탄생하였다. 모임을 시작한지 6개월, 신입생 창립멤버가 2학년이 되었을 때 한 여자회원의 추천으로 E여자대학교의 신입생 여자회원 한 명이 입회하였다. 첫인상이 좋은 그녀는 나의 허전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얼굴은 늘 맑기만 했으며 동아리에 나갈 때마다 야릇한 이성의 느낌이 강렬하게 풍기는 인상이었다. 그녀를 보고나면 한동안 지워지지 않을 만큼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빨갛게 잘 익혀진 능금과 같았다.

심우회 정기모임외에 우리는 주말을 이용하여 둘만의 시간을 갖는 등 데이트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것이 첫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적한 남산도 걸었고, 영화관과 음악 감상실, 고궁과 전시회도 다니곤 하였다. 흰 눈 내린 크리스마스 새벽에는 몇몇 심우회 회원과 함께 그녀의 집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캐럴도 불러 주었다.' 그녀는 부끄러워 나와 보지는 못하고 창문으로만 우리를 반겼다. 연애하는 동안, 수줍음인지 창피당함의 걱정인지 손 한번 못 잡아본 순수한 데이트였다. 현재의 통념으로는 이해 안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데이트를 했다. 여러 가지의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선물도 많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나의 행적을 눈치채셨는지, 부모님께서 집에 한 번 데려와 보라 하셨다. 부모님께서는 키도 작고 나이 차 도 한 살밖에 안 되니 결혼상대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었다. 또 더 좋은 규수 감들이 많으니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 하셨다.

연애한지 1년 반, 3학년 2학기가 되니 졸업 후 장래에 대한 근심과 조바심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아가서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나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동급생은 고등고시 및 취직시험 준비한다고 도서관으로, 절에 들어가니 나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강한 경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나도 마음 가다듬고 시험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산사山寺에서 공부와 심신수련이 급선무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진로와 그녀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우리의 냉정한 관계정리가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이율배반의 사고인지 모르나 그 당시 여건하에서는 헤어짐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이야 예전에는 미쳐 몰랐다. 이별의 결단은 몇 주간의 고뇌 끝에 나온 것이였다.

1960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충무로 태극당에서 우리는 만났다.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적막이 흘렀다. 몇 주일을 고민하다가 서로를 위하여 헤어짐이 좋겠다는 이별을 고할 때는 오히려 담담해지는 내 심정은 어찌된 일인가... 그녀도 나의 결정을 서글픈 눈빛으로 의아함과 이해함 반반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우리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잘 살아 봅시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우리는 태극당을 나왔다. 저녁노을도 이별을 슬퍼

이종호 (인문 81)

나이 들면 왜 말이 많아질까

우리보다 5~6세 젊은 부부네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있다. 그 부부가 서둘러 표도 끊고 숙박 예약도 해 둔 덕에 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도 떠나기 전 여기저기 뒤져 가볼만 한 곳들을 열심히 알아봤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꼭 들러봐야 할까 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한마디 툭 던졌다. "당신은 아무 말 말고 그냥 있는 게 좋겠어요. 그쪽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의견 내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음엔 같이 가자고도 안할 거예요."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내가 벌써 그렇게 되었나.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도 자칫하면 잔소리, 군소리가 되고 심한 경우 헛소리 취급을 받고 만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다. 나도 나보다 연배의 사람이 이러자 저러자 자꾸 의견을 내 놓을 땐 그다지 편치가 않았으니까.

비슷한 경험 한 가지 더. 일전에 한국에 갔을 때다. 두어 시간 KTX 열차를 탈 일이 있었다. 건너편 자리에 초로의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옆자리 젊은이에게 잠시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신다. 왕년의 이야기, 외국 있는 자식 자랑 등 장황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젊은이의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분 목소리까지 커서 안 들으려 해도 들려오는 얘기를 한 시간쯤 듣고 있자니 나 역시 은근 고역이었다. 젊은이들 만나면 나도 혹시 저런건 아닐까, 살짝 반성이 되었었다.

사실 누구에게나 입을 닫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그렇다.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늘 본인 이야기만 하는 분들 역시 대개는 나이가 더 많은 쪽이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도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다. 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질까.

살아온 세월이 길어 쏟아 놓을 '꺼리'가 쌓이고 넘쳐서 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대화 상대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어쩌다 기회가 생기면 '이때다' 하고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든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뇌세포는 30세를 기점으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40~50대가 되면 그 속도가 갑자기 더 빨라져 방금 한 일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돌아서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것 역시 50세 전후부터라고 하니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인의 다변을 나이에서 오는 기억력 감퇴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닌 것 같다. '브레인 파워-뇌를 젊게 하는 8가지 습관'(마이클 겔브, 켈리 하월 공저)이란 책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기억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한다. 몸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억력도 노력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낯선 것을 피하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운다든지 해서 두뇌에 자극을 계속 주면 얼마든지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아내로부터 말이 많아졌다느니 했던 말 또 한다느니 하는 지적을 부쩍 듣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걱정하던 나로서는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터. 문제는 필요한 말만 어떻게 적절히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경계선을 잘 판단하는 것이 노년 지혜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성경에도 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주 중앙일보 OC본부장

아쉬워하는 듯 붉게 물들어 하늘을 색칠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같은 과의 친구와 서울 근처의 용문사로 책 보따리 싸들고 입산하여 몇 달간 공부하며 수도하기로 하고 집을 떠났다. 그녀와의 추억도 잊어버릴 겸.... 얼마 동안은 마음 가다듬는데 애를 먹었으며 허전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서울에 있었더라면 다시 그녀를 만났을 것이다. 친한 심우회 회원을 통하여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녀는 등교도 못 하고 몇 주간 돈암동 집에서 앓아누워 있었다 했다.

그 후, 나는 졸업하고 군 제대 후 은행에 1년간 다닌 다음 미국으로 유학 왔다. 이곳에서 살면서도 나의 마음 아팠던 추억과 함께 가끔 그녀의 생각이 떠오르곤 하였다. 첫 사랑은 아름답고 못 잊는가 보다는 독백과 함께.... →

이내원 (사대 58)

이순신의 탄생과 가문 덕수 이씨 (德水 李氏)

모든 한국인들의 지극한 존경과 기림을 받는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그 배경이 된 가문의 내력에 비추어 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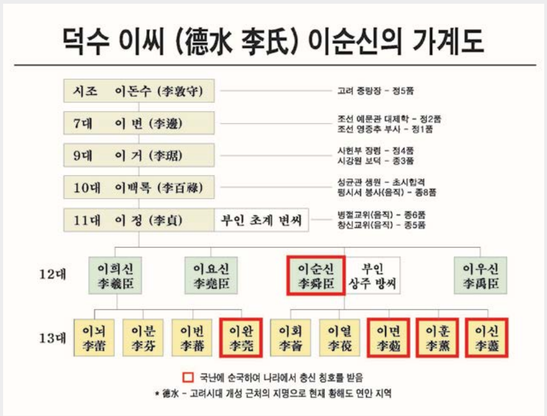
이순신은 조선 인종 원년인 1545년 음력 3월 8일(양력 4월28일) 당시의 지명으로 한성부 건천동(乾川洞 – 마른내), 현재의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부근에서 덕수 이씨 11대손 이정(李貞)과 그 부인 초계(草溪) 변(卞)씨 사이의 4남 1년 중 셋째 아들로 태어 났다.

당시의 건천동은 장안이기는 하였으나 변두리에 해당하는 한적한 동네로 알려지고 있어 이순신 집안이 상류가 아닌 평범한 양반가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순신의 가문인 덕수 이씨는 고려 중기 정5품 중랑장(中郎將- 현재의 연대장급)을 지낸 이돈수(李敦守)를 중시조로 하고 있어 그 뿌리가 무반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3대조와 4대조는 문과급제하고 6대조는 다시 잡직 장교를 지내 문무를 오락가락한 셈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7대조 이변(李邊)은 문과급제 후 정2품 예문관 홍문관 양관 대제학과 정1품 영중추부사에 오르고 9대조 이거는 문과 급제 후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이조 좌랑 등 청요직을 거치며 엄격하기로 이름이 높아 '호랑이 장령'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성종 말년 세자 시강원 보덕으로 연산군의 사부(개인교수)가 되면서 가문이 문반으로 화려하게 꽃 피게 된다.

조부인 이백록(李百祿)은 초시를 거쳐 성균관 생원이던 중종 14년 신진 개혁사류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다가 기묘사화에 처벌을 받게 된다. 다행히 연소한 제자라는 이유로 극형은 면했으나 탈고신(奪告身)이라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과거 응시를 하지 못하고 조상의 덕으로 음직인 평시서 봉사(시장 관리관)를 지냈다.

이에 더해 이백록은 중종이 승하(사망)하여 국상 중인 줄을 모른 채 지방으로 내려가 아들을 혼인시키느라 잔치를 벌려 국법을 어긴 죄로 징벌을 받고 급기야 장독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환란을 지켜 본 아버지 이정(李貞)은 벼슬과 서울 생활에 환멸을 느껴 꿈을 접고 가족을 거느리고 처가가 있는 아산 백암리(白岩里- 배암골, 현재 현충사 일대)로 낙향을 함으로써 이름뿐인 양반 가문으로 내려 앉게 된다. 이 때가 이순신의 나이 13세 경으로 아산을 사실상의 고향으로 삼아 이곳에서 꿈 많은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



이곳에서 21세 때 이웃동네의 보성 군수를 지낸 명궁 무장 방진(方震)의 외동딸에게 장가들어 문반 이순신의 무반 전향의 결정적 계기를 맞은 듯하다. 실로 구국의 명장 이순신의 등장이 이 혼인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 혼인의 중매는 명종대 영의정을 지냈던 이준경이 선 것으로 보아 양가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혼인 다음 해인 22세에 무과훈련을 시작하고 28세 때 첫번째 무과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말에서 떨어져 실패하고 4년뒤인 32세 때 정기 무과시험에서 병과 4등(29명 중 12위)로 합격한다. 그 해 12월 첫 임지인 함경도 두만강변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시작하여 훈련원 봉사, 다시 함경도 조산보 만호, 그리고 발포(고흥) 만호로 처음 남해안 수비대장이 된다. 이후 행정관인 정읍현감을 지낸 후 좌의정 유성룡의 특별 추천으로 드디어 전라좌수사로 수군 지역 사령관이 되어 이곳에서 1592년 임진왜란을 맞는다.

이후 7년의 기나긴 전쟁기간 동안 전승을 거두며 구국행진을 계속하였으나 선조 임금의 오판으로 백의종군의 고통을 받기도 했다. 원균에 의한 칠천량 참패로 겨우 남은 13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의 일본함대를 기적적으로 격파 퇴치함으로써 꺼져가는 나라를 구해 냈으나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적의 조총을 맞고 전사함으로써 조선은 불세출의 영웅을 잃는다.

5세 7충 2효, 충효의 가문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영예로움을 한마디로 이르는 찬사이다. 이순신 가문은 5대에 걸쳐 일곱명의 전사자와 두 명의 국가 지정 효자가 배출된 집안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이순신의 노량해전 전사, 셋째 아들 면의 아산 전사, 서자 훈과 조카 완의 정묘호란 전사, 서자 신의 이괄의 난 전사 후 4세손 홍무, 5세손 봉상 전사와 7세손 이빈, 제빈 두 효자를 이름이다. 이순신과 세 아들이 전사하였으니 한 가정 4부자가 전사한 충신가의 으뜸이라고 할 것이다.

역대 통제사의 명문

초대와 3대 통제사를 지낸 이순신이 노량에서 전사한 후 고종 31년인 1894년까지 330년간 208대 통제사가 이어졌는데 그 중 이순신 후손이 12명 들어 있으니 이순신의 초대와 3대를 합하여 이순신 직계가 14번의 통제사를 역임하여 가히 통제사 가문이라 할 것이다.

초계 변씨(草溪 卞氏) 가문과의 뿌리 깊은 혼인 관계

이순신 가문을 말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모부인(어머니) 변씨로 연결되는 초계 변씨 가문이다. 우선 이순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초계 변씨이고 이순신의 누이가 초계 변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 3대에 걸쳐 3중으로 혼인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중첩된 두 가문간의 혼인관계는 그 뿌리가 세종대의 7대조 이변과 과거시험 합격 동기인 변효경(일본에 통신사로 다녀 온 변효문의 동생)과의 뿌리 깊은 교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제일의 명문가 덕수 이씨 (德水 李氏) 가문

덕수 이씨 가문을 말할 때 문(文)에서는 율곡 이이 무(武)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표어가 따라 다닌다. 율곡 이이는 충무공보다 나이로는 9살 위이나 항렬로는 한 대가 아래인 덕수 이씨 13대손으로 이순신에게는 19촌 조카뻘이 된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아 이순신이 훈련원 봉사로 초급장교 생활을 할 때 율곡은 병조 판서로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직접 상관의 위치에 있었으나 엄격한 이순이 만나기를 기피하여 평생 만난 일이 없다.

율곡은 아버지 이원수와 조선 현모양처의 표상인 어머니 신사임당의 아들로 첫번째 문과 과거에서 천도책(天道策)이라는 성리학 논설을 제출하여 장원급제한 후 연달아 여덟번을 내리 장원급제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 - 아홉번 장원급제한 석학)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조선 제일의 천재학자임을 증명한다.

율곡은 선견지명이 있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력을 한양에 2만명, 8도에 각 1만명씩 도합 10만 양병설을 주창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같은 문중의 충무공 이순신이 대신 막강한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 냈으니 덕수 이씨 가문을 조선 제일의 명문(名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서울에 혼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나의 첫 사랑을 만나보고 싶은 야릇한 호기심과 충동심이 일어남은 웬일인가. 내 고등학교 동기 부인이 그녀와 같은 K여자고등학교 동기생임으로 우리의 재회는 쉽게 이루어졌다. 약속한 날까지 며칠간,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가 나를 설레고 흥분하게 했다. 그간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 가, 가족은 몇이고, 어찌 변했을 가, 내 생각도 했을까, 등등.... 떨리고 긴장된 심정으로, 워커힐 커피숍으로 나갔다. 40여 년 만의 극적인 상봉이었다. 그녀의 젊고 아름다웠던 몸매, 예뻤던 얼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영락없는 60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나도 늙었건만 젊은 날의 기억만 떠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산도 네 번 이상 변했을 긴 세월동안의 각자 인생살이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이야기하였다. 다시 만남의 실망과 후회만을 뒤로 하고, 나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워하던 첫 사랑은 만나지 말고 추억으로만 내 가슴속에 묻어만 둘 것을 하는 아쉬움만 든다.

최은관 (상대 64)

<역사 이야기>

수메르인의 생명 나무 전통과 신단수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갔다고 하는데, 피숀과 기혼이라는 강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지난 몇천 년 동안 흐름이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대체로 그 자리에 흐르고 있다. 에덴 동산은 이 두 강의 상류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메르인은 중국인과 인도인을 앞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문명을 일으킨 족속이었다. 이들은 기원전 5천 년경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하였다. 세상에서 첫 도시 에리두에서 우바이드 문화가 일어났고, 수메르인은 키쉬, 라가쉬, 우륵, 우르 등지에서 도시 국가를 세웠다. 수메르인은 노아 홍수로 이름난 아라랏 산 지역에서 살다가 농부가 되려고 두 강 사이의 지역으로 옮아갔다는 설이 있다.

1. 수메르인의 생명나무 전통

우바이드(Ubaid) 문화의 도자기를 보면 돌림판을 쓴 흔적이 보이는데, 이미 기원전 5000년경에 수메르인이 바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2100년경에 쐐기 문자로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구약의 홍수 이야기보다 적어도 1천년을 앞선다. 또한 길가메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딜문의 바다에서 생명 식물을 얻는다. 이 식물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는다고 하는데, 뱀이 이것을 훔쳐가서 길가메시는 불사의 희망을 잃고 슬피 운다. 이 이야기도 창세기에 아담이 생명 과일을 못 먹게 되어 죽는다는 이야기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인은 모세의 시대에도 글자가 없었고, 기원전 8세기에 페니키아 알파벳을 빌려 쓰고, 3세기에나 아람어 알파벳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후일에 아카드(Akkad) 제국의 사르곤 왕(Sargon the Great, 기원전 2334-2279년)이 수메르를 점령하였고, 다시 기원전 1894-1595년에 아모리 족속이 일어나 바빌론 제국을 세웠다. 수메르를 점령했어도, 바빌로니아인은 우수한 수메르인의 문화를 존중했고, 쐐기문자와 생명나무 전통을 이어받았다.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는 셈 족의 아카드 언어로 쓴 이야기이지만 쐐기 문자로 기록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 바빌론에서 왕궁을 확대하고 이쉬타(Ishtar) 대문을 지었는데, 이것은 5층 건물의 높이이다. 색칠한 타일로 지어진 이 대문은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대문에는 생명나무 네 그루가 그려져 있다. 생명나무는 큰키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관목이고, 꽃이 많이 핀다. 생명나무의 가운데 꽃술은 노란 색이고 꽃잎은 흰색이다.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히브리인은 기원전 1050년경에 나라를 세웠으나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가 분단되었다. 북쪽

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씨리아에 점령당하여 망했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를 잃었다. 느부갓네살이 점령했을 때, 유다의 인구는 7만5천에 달했고, 약 2만 명을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데려갔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Cyrus) 대제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나서 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냈다.

거의 50여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인에게서 생명나무 이야기를 얻어 들었고, 상당히 와전된 형태로 생명나무 이야기를 창세기에 올려놓았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이들로부터 풍문만 들었고, 실물도 그림도, 浮彫로도 생명나무를 본 적이 없었다. 직물이 발명되지 않아서, 당시에 수메르인은 아담과 이브처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걸쳤다. 그러나 수메르인의 생명나무 이야기는 뒤이은 셈 족속, 바빌로니아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바빌로니아인은 글자뿐 아니라, 수메르인의 문화와 교육제도를 통째로 삼켰고 이쉬타 대문에 타일로 생명나무를 크게 새겼다. 뿐만 아니라 수메르 문화를 존중하여, 진흙 서판에 수메르-아카드어 사전까지 만들었다.

님롯(Nimrod)에 있는 북서 궁전(기원전 865년경)의 벽은 설화석고 부조(浮彫)로, 수십 장면에 생명나무와 날개 달린 압칼루(Apkallu, 생명나무를 지키는 보호 영)가 새겨져 있다 (출처: 대영박물관). 이 부조들은 높이가 2미터나 된다. 윗 사진에는 생명나무 양쪽에, 날개 달린 수호 영들이 이파리에 붙은 이슬을 가죽 주머니에 담고 있고 (물이 많이 담긴 자루는 아래가 불룩하다), 다른 벽에는 그렇게 모인 이슬을 淨化 의식 중에, 솔방울로 임금의 뒷머리를 적시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생명나무는 일종의 떨기나무이다. 가지의 사방에서 잎파리가 생기고 꽃은 기본 줄기의 맨 밑에, 중간에, 그리고 꼭대기의 큰 잎파리 밑에 솟아난 것이 보인다. 또한 생명나무 꽃봉오리가 있는 가지와 만발한 가지들을 따다가 성전 예식에 쓰는 장면이 다른 벽에 새겨져 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수메르인에게서 말만 들었어도 이 아씨리아인들은 생명나무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애를 쓴 것이 눈에 보인다. 본 적이 없어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리거나 새기지는 않았다. 떨기나무이니까 꽃에서 조그만 베리 같은 열매가 많이 열렸을 터이고, 아담과 이브는 이 열매와 이파리를 먹었을 것이다. 왕궁의 벽에 이러한 부조를 새긴 의도는 수호 영이 생명나무 이파리에 묻은 이슬로 하늘이 선택한 임금을 정화시키고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종교 예식을 묘사하려고 한 듯하다.

이처럼 수메르 지역에 굴러들어온 셈 족속은 생명나무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셈족 이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들에게 밀려서 고향을 떠난 수메르인의 일부는 유럽・크레테・에집트로, 일부는 아라랏 산과 중앙 아시아로 흩어졌고, 소수파는 한반도까지 왔을 가능성도 있다.

2. 왜 환웅의 아들을 단군이라 지었는가?

수메르인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하고 맥주와 쐐기문자를 발명하였다. 돌이 귀하여 돌로 지은 건물은 없고, 겨우 진흙으로 빚고 햇빛으로 말린 벽돌로 도시를 건설하고 지꾸랏을 지었다. 지꾸랏(ziggurat)은 3단계의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 내부는 진흙 벽돌로, 겉은 구운 타일(평평한 기와)로 치장하였다. 기초는 가로 64미터, 세로 46미터가 되며, 높이는 30미터 정도였을 것이라 한다.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3층에 성전이 있었다고 한다. 홍수가 질 경우에 사제들이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직각으로 만나는 두 계단을 거쳐 첫째 플랫폼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사제들은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통제하였다. 세월이 지나자 진흙 벽돌은 비에 씻겨 허물어졌고, 따라서 오래된 지꾸랏 꼭대기에 있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짐작하기 어렵다.

단군이라는 말은 신단을 쌓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환웅 부족이 곰 부족을 동원하여 규모가 작은 지꾸랏을 이렇게 세웠다면, 그를 당연히 단군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또한 거기에 상징으로 세워 놓은 신성한 생명나무를 신단수라고 불렀을 것이다.

환웅이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가져왔고, 이것들을 신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곰 부족이 아직 신석기 시대의 부족이었고, 청동 기물을 신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왔으니, 환웅은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다. 환웅이 수메르에서 왔다면, 단군은 아버지의 부탁대로 고향의 지꾸랏과 같은 신단을 쌓았고, 그 때문에 환웅은 아들의 이름을 단군이라고 지었을 듯하다. 그러면 신단 또는 天檀은 무엇 때문에 쌓는가?

한국인이 하늘님을 믿었듯이, 중국인은 상제(上帝)를 믿었다. 공자가 쓴 서경(書經)의 요전(堯典)에는 순(舜)임금(기원전 2230년 경)이 上帝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 (서민호 교수) 물론 우리는 하늘 님 또는 하느님이라 불렀고, 한자가 들어온 뒤에 그를 상제, 또는 옥황상제라 하였다.

오소운 목사에 따르면 상제 개념은 중국인이 한국인에게서 배운 것이라 한다. 옛날의 고조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구경하는 중국인에게 삼신일체 이론을 자상하게 설명했을 리는 없다. 중국인은 한국인이 상제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보고 흉내내기만 했고, 하늘을 우러러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늘님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배웠으나, 삼신일체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국인 사이에는 삼신일체 개념이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중국인이 섬긴 상제는 그저 하늘에 계신 상제요, 고조선의 상제는 삼신일체 상제였다. 오소운 목사의 말씀대로, 이것은 고조선 사람들로부터 옛 중국인이 상제 사상을 배웠음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면 우리의 선조는 이 개념을 독자적으로 발명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빌려왔는가?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기원전 2700년부터 수메르 사람들은 三神一體 또는 삼위일체를 믿었다. 아누(Anu)는 하늘의 첫째 신, 아버지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이이다. 아누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엔릴 (Enlil), 곧 공기와 땅의 신, 창조하는 신이고, 엔키(Enki, 또는 Ea)는 물의 신, 지혜의 신이다. 이것은 天神・地神・人神이 하나가 된다는, 고조선의 삼신일체 개념과 대체로 비슷하다.

중국인에게 삼신일체 사상이 없다는 것은 중국인과 수메르인 사이에 (종교적)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한국인이 삼신일체 상제를 믿었다는 것은 고

조선 이전의 한국인(곰 부족)이 수메르인과 접촉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조선이 열리기 이전의 한국인은 수메르인으로부터 하나님 개념을 배워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중국인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오소운 목사에 따르면 "태조 3년 (1394년)에 삼국 시대 이래로 원구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곡과 기우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기록하여 옛날 제도를 회복하되 이름을 원단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고 하여 임금이 그대로 천제를 지냈으나, 중국의 압력으로 결국은 1464년에 원구제를 마지막으로 조선 땅에서 천단의 제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명나라 시대에 북경에 지은 천단의 크기는 자금성의 네 배나 된다.

3. 단군신화와 에덴 동산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야기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와는 거의 공통점이 없다. 이것은 환웅 부족이 곰 부족과 관련을 가진 것은 사르곤 대제가 수메르를 통일했을 때나 그 직후가 아니라 훨씬 후였음을 암시한다. 오히려 신단수와 신시(神市)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과 아담이 거기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느님의 아들은 여럿이 있었고, 그 중에 서자 환웅은 처음에 신단수가 있는 신시로 갔다.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신시가 수메르와 한반도 사이에 어딘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단군신화와 에덴 동산 이야기의 비슷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❶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환웅은 하나님의 서자이다.
❷ 아담의 무대는 에덴 동산이었고, 환웅의 무대는 神市였다.
❸ 에덴 바깥에는 가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고,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니 사람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다.
❹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았으며, 환웅의 아들 단군도 신단을 쌓았고 거기에는 신단수가 있었다.
❺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하늘에서 온 환웅은 웅녀를 아내로 삼았다.
❻ 아담은 생명나무만 있으면 영생할 수 있었고,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항상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다. 단군신화는 신단수가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을 강조한다.

에덴 동산 바깥에는 생명나무가 없으므로 아담은 결국 죽어버린다. 신단수가 있는 곳으로 환웅이 내려가서 신시를 세웠다는 것은 신단수가 영생에 필요한 것을 암시한다. 환웅은 천부인 세 개를 가져왔지만, 불멸하지 않고 (기록에는 없지만) 결국 죽었다.

단군이 신단을 쌓았다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단군의 신단수 이야기를 독립된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수메르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었으니까, 수메르인이 단군신화를 베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빌로니아의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한반도까지 전해졌지만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곡해된 형태로 우리에게 단군신화로 전해진 것이 아닐까?

환웅 부족이 수메르에서 우수한 청동기 문물을 가지고 왔다면, 신단수는 생명나무였을지 모른다. 신단수라는 나무 앞에서 웅녀가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고, 단군은 자라서 신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단군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는 곰을 숭상하던 부족들의 곰 토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우랄 산 지역과 내몽고(홍산 문화)에는 곰을 숭상하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 곰을 숭상하던 부족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곰 토템 부족이 살던 곳이 우랄 산이나 내몽고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환웅 부족이 아마도 옛 고향 아라랏 산을 지나서, 우랄 산 지역이나 내몽고의 홍산 지역에서 곰을 숭상하던 부족과 서로 결혼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허유선 (가정 83)

2017년 홈커밍데이를 다녀와서

2017년의 홈커밍데이는 10월 14일 토요일, 마포 SNU 장학빌딩에서 모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학회관방문후 서울대의 협조로 학교버스 를 타고 한국 방문시 꼭 보아야할 장소로 꼽을수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 을 보았습니다.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도 먹고, 특별히 미국에서 구글로 독립기념관 근처의 맛집 으로 찾은 "시골 손두부"에서의 저녁식사와 막걸리는 모두들 입맛에 딱 좋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홈커밍데이 날인 15일은 비가 내리던 작년과는 달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날씨였어요. 일찍 등록한 동문들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찜질방 입장권을 상품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가방 안에는 점심 도시락과 음료수, 기념품인 야외용 방석 등 알차게 채워져 있었어요. 미주에서 온 우리동문들은 특별히 총장실을 방문해서 총장님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의 가장 대박(?)은 최고 경품인 자동차를 미주 동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제 옆에서 점심을 드시면서 "난, 이런 것 뽑힌 적이 한번도 없어" 말하셨는데 특별히 경품 추첨자인 윤상래 회장님께서 "간호대 김주환 66학번" 하는데, 이 선배님께서 남편 손잡고 신발도 못 신고 뛰어 나오시는 거예요. 김주환 선배님이 간호대 재학 중 심리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과 연애하셔서 결혼 하셨다는데, 역시 놀랍게도 그 교수 남편 선배님 (민홍기 심리 61) 께서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이 자동차를 모교 동창회에 기증합니다" 하셔서 우뢰 같은 박수를 받으셨어요.
이날 , 오후에 있었던 행복기부 콘서트 또한 재미있었어요. 관악구 와 협찬으로 진행되었기에, 사회자가 관악구 말고 멀리서 오신 분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미주동문 중 캘리포니아주가 손들고, 뉴욕이 손을 들자, 사회자가 "아! 누가 서울대 아니랄까봐 이러시면 어떻해요, 원래 용산구, 종로구, 이러면서 가는건데 처음부터 캘리포니아주, 뉴욕 이러면 진행이 안되죠.." 하면서 난감해 했지요. 저녁에는 총동창회에서 베푼 만찬이 있었는데요. 인생의 모든 지혜와 희노애락이 녹아 있는 건배사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냅킨에다 받아 적으시는 우등생 동문님도 계셨습니다.
16일 월요일 에는 미주동문 초청 프로그램 이 발전기금 의 협조로 있었습니다. 학교버스로 캠퍼스 전체를 둘러보고, 문화관에서 전시 중인 "도약의 날개를 펴라" 기획 전시를 보았습니다. 관악 캠퍼스에 관한 모든 역사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중 우유 팩차기의 동영상 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네요. 80년대 이후 관악캠퍼스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학생치고, 우유 팩 차기를 안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많이 달라진 인문대 앞의 자하연의 사진과 4.19 혁명 중에 희생된 6명을 포함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19명을 추모하며 만든 기념비를 잇는 1.2 km에 걸쳐 조성된 산책길인 "민주화의 길"을 보니 이제 대학생의 아이들을 둔 80이후의 학번인 저에게 그들 부모님들을 생각해보게 했고,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부터 빚을 갚는 그런 아련한 만감이 교차 하더군요.
세계 가보고 싶은 1001 군데의 도서관 중 하나라는 도서관은 다른 어떤 미국의 대학의 도서관 못지 않게 잘 정리 되어 있고, 80년대 여기저기 책상 모서리에 걸쳐져 있던 신문지들은 찾아 볼 수가 없더군요. 종이 신문은 이미 석기시대 유물처럼 사라져 버린것 같았어요. 우리때 도서관에서 보면 공대쪽으로 넓게 보이던 하늘은 많은 건물들에 가리워져서 거의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더군요. 미주의 동문들의 본인의 이름이 기증자로 새겨진 소극장, 스타디룸, 도서관 의자 등 을 보고, 한글 이름을 이렇게 한국에, 모교에 남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점심으로 학생식당 에서 식사를하고, 발전기금 재단에 들려 2017년 방문 기념 사진을 찍고 행사는 끝났습니다.
미주 서울대 동창회는 작년부터 모교 홈커밍데이를 미주에 있는 동문들이 의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계속 되는 북한과의 전쟁설로 한국 방문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동문들도 계시고 노파심에 권하지도 못하면서 진행되었지만, 25명의 인원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방문 중에 필요하다면 서울대 병원 강남센타에서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한 눈으로 보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동문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 까지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타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 곳을 운영하는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사람은 행복해 지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행복을 만드는 환경 중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것이 주변에는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진취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행복함이 배로 증가하면서 빠르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홈커밍데이에서 처음 만나는 미주동문들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진취적이고 특별히, 본인의 젊은날의 삶을 뒤돌아 보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멋진 분 들입니다.

내년의 홈커밍데이는 10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수웅 (의대 55)

Ingmar Bergman의 영상 세계

원명은Ernst Ingmar Bergman, 에른스트는 빼고 영미계통에서는 잉마 버그만으로 통하지만 여기서는 스웨덴어로 잉마르 베리만으로 표기한다. 베리만은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및 오페라 감독으로 도합 62편의 영화와 170편이 넘는 연극을 감독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본을 손수 작성하였다.

그는 사실적인 영화로부터 시작하여 희극적인 무대작품을 거쳐 점진적으로 '인간과 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그는 엄격한 종교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종교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실토하였다. 그는 서로 상반되는 신념, 어린때의 경건한 신앙과 새로 발견한 조잡한 현실주의를 수용하고 있어 그것들간에는 그런대로 휴전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보다 그는 어데까지나 '인간이 신성하다'는 개념을 각인시킬려 노력하였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엄연한 실존주의적인 개념과 에로틱한 성적충동과 북유럽적인 신비적인 배경을 융합하여 추상적 관념성을 고도로 승화하는 독자적인 영상세계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성도착적인 부조리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귀의 존재를 도입하는 비범한 수법을 썼다. 베리만은 한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기록영화가 아닌 영상은 꿈과 같다. 나는 나의 생애의 전반에 거쳐 이 '꿈의 세계'를 타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만 몇차례 '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타르코브스키(Andrei Tarkovsky)는 자연스러히 이 꿈의 세계에 드나들고 있다. 그 역시 관람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꿈의 영상을 별 노력없이 표출하는 듯 하다". 그는 이어서 영상과 꿈, 그리고 영상과 음악의 연계성을 일찌기 터득하였다. "영상은 꿈과 같으며 영상은 음악과 같아서 우리의 감상속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심저에 의식의 여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와닿는다."

그리고 베리만은 영화와 음악이 우리의 정서와 영혼에 직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가 만든 '마술피리'(Magic Flute) 같은 오페라를 영상화한 것을 감안하면 그의 음악에 관한 식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일찌기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예술은 세상의 번민에서 벗어나는 수단의 하나이며 그중 음악이 추리적이어서 언어의 도움이 없이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술품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린시절과 성장과정: 베리만은 스웨덴의 웁살라(Uppsala)에서 1918년 7월14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 에릭 베리만(Erik Bergman)은 루터교파의 목사로 후에 황실목사로 임명되었고, 그의 모친은 명문가의 딸로서 간호사 출신이다. 그는

네살위인 형 다그(Dag)와 누이동생 마르가레타(Margareta)와 함께 엄격한 종교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부친은 대단히 보수적인 목사로 엄격한 가정교육을 지향하였다. 어린 베리만은 야뇨증때문에 한번은 옷장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그는 일생 이 어린 시절을 성찰하면서 살았다. 그의 모든 작품에서 자기 성찰적인 면면이 들어나고 있다. 그는 그의 예능적인 재질이 모친에게서 전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모친과 외조모를 늘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 '마술의 등잔'(Laterna Magica)에서 그 당시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아버님이 교단에서 설교하는 동안 온 성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교회건물에서 풍기는 신비성에 사로 잡혀 있었다. 태양광선이 반원형의 천장과 두툼한 벽에 투영하는 이상야릇한 형상속에서 천사, 성인, 용, 선지자, 마귀, 인간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초점두고 있었다."
그는 1962년에 제작한 '겨울빛'(Winter Light)에서 그가 8세때 "신앙을 잃었다"고 술회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극장과 영화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일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 집안에 부자 이모가 있어 매번 성탄절에 대단한 선물을 주곤 하였다. 내가 9세나 10세였을 때에 안나(Anna) 이모의 선물이 책상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 보기에 영상기에 틀림없었다. 그 당시 내가 제일 갖고 싶어하던 물건이었다. 다른 집은 성탄전야에 선물을 교환하는데 우리집은 성탄절 아침까지 늘 기다려야 했다. 알고보니 이는 형에게 온 선물이었다. 나에겐 겨우 테디베어가 왔다. 나는 대단히 실망하였다. 다행이 형은 영화에 전혀 취미가 없었다. 그래서 형에게 노름 병정들을 한줌 주고 영사기와 바꾸었다. 그후 부터는 병정놀이에서 형에게 매번 지곤 하였다." 이 영사기를 얻고 나서 1년도 안되어서 그는 자유자제로 이 영사기를 써서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열어나갔다. 그러나 늘 그렇게 자유방만하게 지날 수는 없었다.

"번번히 부친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 다니고 있었다. 한번은 여러 교회에 아침예배를 보러 갔는데 교회마다 신앙심이 역부족하고 또 목회자도 성의없이 설교하여 대단히 실망하고 있었다. 한번은 부친이 은퇴하고 나서 어느 시골 교회에 찾아갔다. 목사가 늦게 나타나서 약식 예배를 하고 나서 물러섰다. 결국 잠언 두절을 읽고 설교가 끝났다. 그리고 목사가 번쩍이는 볼보를 타고 떠난다. 이때 부친이 노발대발하여 일어서서 목사사무실로 들어가서 한참 성토한 끝에 부친이 교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다시 인도하였다."

그가 16세 되던 1934년 그는 독일에 건너가서 친구의 집에서 한 여름을 지냈다. 그는 바이마르에 가서 나치의 결단식에서 히틀러를 보았다. 그후 그는 한동안 히틀러를 잊지 못하였다. 무엇보다고 히틀러의 카리즈마에 경탄하였다. 그때 그는 "나치즘이 신나고 젊음으로 생동하는 듯 하였다"고 피력하였다.

1937년, 그는 스톡호름대학에 입학하여 예능과 인문학과를 전공하였다. 재학시 그는 많은 시간을 '학생극장'일에 활애하여 점차로 영화에 도취되고 있었다. 이때 애정문제로 부친과의 관계가 몇년동안 소원해졌다. 결국 그는 대학졸업은 못했어도 몇 편의 연극을 각색하고 오페라도 하나 작곡하고, 어떤 극장의 감독의 조수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제작한 '카스파로의 죽음'의 감독도 하였다. 이 연극을 관람한 스벤스크 영화사(Svensk Filmindustri)의 중역들이 베리만에게 대본을 각색하는 일을 맡겼다.

영화회사에서의 활동: 베리만의 영화경력은 1941년 자작한 대본을 재생하면서 시작한다. 1944년 그는 '번민'(Torment/Frenzy)의 대본을 작성하고 쇼베라(Alf Sjoberg)가 이를 감독하였다. 이때 그는 대본각색에 끄친 것이 아니고 그 영화제작의 조감독역까지 하였다.

두번째로 제작된 영화가 그의 자서전 격인 '영상'(Images: My Life in Film)인데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성공함으로 해서 그는 그후 10년 남직한 기간에 12편 이상의 영화를 감독하게 되었다. 그중 'The Devil's Wanton/Prism'(1949), 'The Naked Night/Savdust and Tinsel'(1953), 'Summer with Monika'(1953)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1955년 '한 여름밤의 미소'(Smiles of a Summer Night)를 각색감독하여 칸느영화제에서 '시적 휴머 우수상'을 받으므로 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겨우 제작비가 마련되어 1957년 '제7의 봉인'(The Seventh Seal) 및 '산딸기'(Wild Strawberries)가 제작되었다. 특히 '제7의 봉인'은 특별재심상을 수상하고 최고상인 Palm d'Or에 추천되고 '산딸기'는 감독과 배역에 여러가지 상이 증정되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그는 포뢰(Färö)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편의 영화를 감독 및 제작하였다. 이때 그는 신앙과 신에 대한 회의에 관한 명제를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작된 것이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Through a Glass Darkly, 1961), '겨울빛'(Winter Light, 1962) 및 '침묵'(The Silence, 1963)이다. 베리만 자신은 이 세 영화를 삼부작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비평가들이 이를 '침묵의 삼부작'으로 규정지은 관계로 베라만도 이를 묵인하였다.

"나는 워낙 천주교에 매력을 느낀적은 없었다. 천주교에서는 나를 그들의 살생부에 얹어 놓았고 또 여러가지로 모함하는 기미를 보여 주었다. 나는 종교적인 독선을 워낙 혐오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인간은 원천적으로 신성하다는 것, 이런 신성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만이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신성'이란 명제를 추리하고 있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사회적 역사적 역경 속에서도 신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신앙은 붕괴되었고, 삶은 부조리와 고통 및 번뇌로 가득차 있었다."

역설적으로 그는 회고록에서 이 삼부작의 의미를 의외로 절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인간의 삶과 신앙의 역학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그의 작품들은 당시 일고 있던 실존주의 사조와 맞물려 큰 반향을 이르켰다. 당시 예수교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그의 내심에 강력하게 태동하고 있었다. 즉 예수교의 하나님은 파괴적이고 극열하게 위험하고 인간에게 위험과 파괴적인 힘을 안겨준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종교적인 이념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모택동, 독감이나 번개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에게 전혀 구제책이 없다. 그런데도 신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그 위험이 재발될른지 알 수없는 상태이다.

영화 '겨울빛'은 특별한 음악과 연계되어 있다. 나는 스트라빈스키의 '잠언 심포니'(A Psalm Symphony)를 한 부활절 아침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웁풀란드의 한 적막한 교회를 배경으로 나는 신에게 그의 존재를 설문하고 있었다. 나는 신의 종말과 내자신의 종말을 걸고 있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달라르나의 한 목자(牧者)에게서 들은 사실을 각본으로 만든 것이다. 하루는 그 목자가 신과 단판을 짓고 있었다. 그 다음 순간 목자가 목매어 있었다. 목자에게는 큰 재앙이었다."

1964년 Playboy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섹스의 발로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영화를 지성적으로만 유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관람자들이 나의 영화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단순히 나의 영화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영화는 나의 연인나 마찬가지라고 부연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그는 자신의 영화 주제에 여성을 동원하였다. '제7의 봉인'으로 시작하여 침묵으로 마감한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비로서 여성들의 삶을 포용해 낸 것이다. 그는 젊어서 죽엄을 대단히 두려워하였다.

여성의 정체성을 지적한 '페르소나'(Persona,1966), 죽음을 직면한 한 여성을 둘러싼 세 여자들의 정서를 다룬 '외침과 속삭임'(Cries and whispers, 1972),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뼈아픈 재회를 소재로 한 '가을 소나타'(Autumn Sonata) 등은 '침묵'으로 종교적 문제를 일단락 짓고 출구를 여성으로 돌린 베리만의 전향적 작품들이다. 특히 '페르소나'는 극히 실험적인 영화였고 별로 수상감도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많은 비평가들이 이를 "나의 최고 역작으로 부추겼다".

한편,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에서 베리만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성도착적인 행태에 착안하면서 자신의 복잡한 성생활을 은연히 반영한 듯하다. 그는 다섯차례의 결혼생활속에서 세 여성(전속배우)과 애정관계를 몇 년씩 가졌고, 아홉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이런 변태성욕증이 새로운 창의성의 발로로 속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마귀의 소행이며 한 인생이 끝날 무렵 마귀들이 모두 소산해 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변태성욕증, 특히 과잉성욕현상이 양극성 정신질환에서 빈발한다는 사실을 정신과 의사들이 흔히 지적하고 있다. 베리만 자신이 자기 부친이 양극성 정신질환으로 기분이 좋은 때는 대단히 재미있었다고 술회한 사실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1968년 유럽은 여러가지 분쟁속에서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면서 더욱 음침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베리만은 1960년대 초반부터 포뢰섬(Island of Färö)에서 살면서 많은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소위 말하는 '악마의 삼부작', '늑대의 시간'(Hour of the Wolf, 1968), '수치'(Shame, 1968) 및 '안나의 정열'(The Passion of Anna, 1969)을 제작하였다. 이후 그는 초기의 실내극으로 돌아가서 '결혼장면들'(1973) 및 '마술피리'(The Magic Flute)를 감독하였다.

그러다가 그에게 큰 환란이 닥쳐왔다. 1976년 1월 30일 탈세혐의를 받고 왕립극장에서 스트린드베리(August Strndberg)의 '죽엄의 춤'(Dance of Death)의 예행연습하고 있던 찰라에 두명의 사복

The Seventh Seal, 1957

형사에 의하여 연행되었다. 베리만은 대단히 감당키 어려운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 치욕적인 사건으로 정신쇄약에 조울증까지 병발하여 입원하였다. 그는 당시의 사회주의 정권의 독선적인 행태를 대단히 혐오하였다.

그러나 기소된지 2개월도 안되어서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베리만은 대단히 실망하여 독일 뮨헨의 레지덴트 극장의 지배인으로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외유하고 말았다. 그동안 그는 '뱀의 알'(The Serpent's egg, 1977), '가을 소나타'(Autumn Sonata, 1978), '마리오네트의 생활에서'(The Life of the Mariotnettes, 1980) 등을 감독하였다.

"나는 그때 포뢰섬에 있던 촬영소를 완전히 닫아 버리고 스웨덴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외유의 길에 올랐다. 나는 처음 미국에 가서 일할 생각도 해 보았다. 나는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국에서 지나면서 여러 영화들을 독일, 미국, 노르웨이와 합작하여 만들었지만, 1977년에서1984년에 이르는 동안을 직업상으로 '완전히 잃은 8년'이라고 생각했다."

1982년 그는 잠간 귀국하여 '화니와 알렉산더'(Fanny and Alexander)를 감독한다. 이는 부친을 잃은 오누이가 어머니를 따라 이붓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소상히 연출한 영화이다. 공교롭게도 이붓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주교이다. 이는 베리만이 누이동생 마게리타와 함께 지낸 유년기의 불행한 일들을 상기시키는 장황한 영화이다. 이 영화를 마감으로 그는 영화계에서의 은퇴성명을 선언하고 연극감독으로 전환하고 텔레비극의 제작에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작한 연극이 2003년에 나온 '사라반드'(Saraband)이다.

전속극단 (Repertory company): 베리만은 사적인 전속극단을 점차적으로 조직하여 스웨덴의 배우들을 수시로 반복해서 고용하였다. 그들이 Max von Sydow, Bibi Andersson, Harriet Andersson, Erland Josephson, Ingrid Thulin, Gunnel Lindblom, Bengt Ekerot, Anders Ek, Gunnar Björstmand 등이다. 이들은 최소 다섯 영화에 각기 출연하였다. 그리고 노르웨이 여우 Liv Ullmann이 베리만의 아홉개 영화와 텔레비극 '사라반드'에 출연하였다. 그녀는 제일 마지막에, 즉 1966년의 '페르소나'에서 시작하였지만 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베리만의 제일 가까운 동료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Linn Ullman이 1966년 태어났다.

그리고 베리만은 촬영기사 Sven Nykvist와 1953년부터 일하였다. 베리만은 촬영하는 당일 아침 Sven에게 간단히 구도와 분위기를 설명하고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즉 촬영기사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곤 하였다.

베리만은 통상 각본을 스스로 썼다. 물론 몇 달동안 혹은 몇 년동안 구상하고 있던 주제들을 각색하였다. 그의 초기 대본들은 대단히 엄밀하게 각색되었지만, 후기 대본들은 배우들이 자유자재로 대화를 조성하고 연극의 줄거리도 바꾸게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배우들의 일거일동을 철저히 감독하였고 어떤 장면은 여러번 반복하고 또한 드레스 리허설 전야에는 흔히 잠을 설치곤 하였다. 베리만의 영화는 모두 스웨덴 말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판배시장에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작비를 외국에서 얻기가 힘들었다.

외유하고 있던 1978년 7월, 그는 스웨덴에 임시귀국하여 환갑축하연을 포뢰섬에서 치루고 왕립극장의 감독으로 잠시 일하였다. 그때 정부에서는 그의 귀국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으로 영화상을 창설하여 매년 영화계의 최고감독에게 수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뮌헨으로 돌아가서 1984년까지 그곳에 머물어 있었다. 2003년12월 그는 영화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고나서, 2006년10월, 대퇴골수술을 받았는데 그 회복이 순조롭지 안았다. 그는 2007년 7월30일 포뢰섬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89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끝으로, 나는 그의 영화를 무척 좋아하지만 지면관계로 그중 3편만을 소개한다. 베리만 자신도 '제7의 봉인'을 제일 선호하였다.

1. 제 7의 봉인 (The Seventh Seal)

베리만은 '제7의 봉인'을 통하여 신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여 죽음과 대결을 선언함으로서 유럽 영화계에 경악을 이르켰다. 베리만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참고한 '나무색칠'(Wood Painting)에서 발췌하여 영화의 서두에 '일곱째 인을 떼실때에 하늘이 반시동안 침묵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요한계시록 8:1-2).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반시동안 침묵'은 '신의 침묵'을 일커른 것이다.

이는 14세기의 역사적 사실을 20세기의 실존주의적인 부조리로 둔갑하여 중세와 근세를 연계한 베리만의 비범한 창의성을 보여줌으로서 그는 일약 영화계의 신동으로 부상하게 된다. "십자군원정에서 돌아온 기사 안토니우스 불록은 흑사병으로 사경에 처해 있는 스웨덴에 돌아오자 바닷가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난다. 기사는 죽음의 사자에게 체스를 도전한다. 체스가 끝날 때까지라도 살아 남아 있으려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죽음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기사 혼자서 계속 체스를 뚜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자기 성곽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사는 종자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간다. 교회에는 '죽음의 춤'의 벽화가 걸려있다. 기사는 고회성사하면서 신부차림을 한 '죽음의 사자'에게 자기의 체스 작전을 고회한다. 기사의 종자가 식수를 찾아 다니다가 젊은 여인을 구제한다. 동네의 대장쟁이 부부도 우여곡절 끝에 기사를 따라나선다. 언덕바지에서 기사와 죽음의 사자가 체스를 끝낼려고 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아무도 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자 기사는 체스판을 반쯤 쓸어 버린다. 죽음의 사자가 체스 병졸들을 다시 줏어세우는 동안 멀지감치 앉아 있던 광대부부가 슬적 도망친다.

기사는 혼자 성곽에 남아 기다리고 있던 조강지처를 만난다. 결혼하자마자 곧 십

와 두번째를 섞어서 종을 울리면서 어떤 때는 규칙적으로 어떤 때는 불규칙적으로 전기충격을 주었더니 쥐들이 '나도 모르겠다'라고 종소리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배움은 조건적 자극(종소리)이 무조건적 자극(전기 충격)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해야만 일어난다는 속발학설(Contingency theory)을 주장했다.

결국은 인지작용이란 자기가 지각한 정보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를 연결해주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두 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한테 매만 맞고 자라서 나중에 자기가 죽자 살자 쫓아다니던 계집애한테 딱지를 맞고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살아나서도 여자를 보면 겁이 나고 좀 괜찮은 애가 접근을 해와도 결국은 파투가 날 것이라고 결혼을 못(안)하고 있다. 이 친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세상만사를 검은색을 칠한 안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첫사랑도 나를 버렸는데 네가 지금은 암만 알랑방귀를 뀌어도 결국은 내 계모같이 되어 버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는 부정적인 자기관,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기대라고 해서 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3대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즈음 정신과에서 인기가 있는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안경 색깔을 검은색에서 분홍색이나 푸른색으로 바꾸어 준다. 예를 들면 네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불과 두 살로서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계모는 콩쥐팥쥐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무식한 여자인데다가 너를 차버린 애는 보석을 돌멩이로 잘못 본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너는 24세의 의과대학 학생인 데다가 너를 좋아하는 애도 알로까진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불알 차고 나온 놈이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고 부추겨 세우는 일이다. 우리 딸 아이가 Yale 대학에 지원했다가 미역국을 먹고 한 말이 "It's their loss – 결국은 지들 손해" 였는데, 이 아이는 지 애비를 닮아서 어려서부터 자가 인지치료에 통달했다. 그 딸에 그 애비라고 저자도 여자들한테 딱지를 맞고는 "나를 몰라주는 너 같은 꼴통은 필요없다." 고 자위를 하곤 하는데, 암만 봐도 딸 아이의 경우는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으나 저자의 경우에는 "신포도"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의 경향이 짙은 것을 보면 이것은 자신감 또는 나이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지주나 자본가의 착취에 얼마나 시달려 왔는가, 이제 공산 혁명이 왔으니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고 다 같이 못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를 향해 매진하자."라는 공산당원의 세뇌교육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정신과 의사들은 안경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꿀 줄 모른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인지요법은 세뇌작용(brain wash)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내가 오늘 이 친구 뇌 세척(brain wash)을 했으니까 100불 내시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를 비롯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cognitive psychotherapy라는 점잖은 말을 쓰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주로 인지요법의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해 왔는데 만약에 이 인지요법을 악용하는 경우 그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새파란 김정은이를 '어버이 수령'으로 모시는 북한의 동포들을 비롯해서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이 테러리스트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인지요법(즉 세뇌교육)의 한계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세상이 지성과 이성으로 피땀 올려 쌓아 왔던 현대주의를 해체시키려는 후현대주의로 들어서면서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다문화의 영향, 오관(五管)을 자극하는 다매체(multimedia) 내지는 전산기나 인터넷을 통한 기계적(mechanical) 학습에다가 인공 지능(A.I.)과 가상 현실(V.R.)을 추구하는 조타주의(Cyberism)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배움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이론도 더욱더 복잡해질 모양이나 저자 같은 꼰대가 나설 처지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자군으로 참전하여 십년만에 돌아오니 서로 어색한 눈치이다. 죽음의 사자가 오기 전에 부인이 석찬을 준비하여 여섯 사람이 '마지막 석찬'을 나눈다. 기사는 '영악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사'라고 기도하고나서 거센 폭풍에 맞서면서 죽음의 사자를 따라나선다. 다음 순간 일곱 영상이 엄숙히 '죽음의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다. 죄없는 젊은 여인은 구제되고, 그 대신 대장쟁이 부인을 유괴하다가 죽은 악한이 행열끝에 보인다. "신은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다."

2. 침묵 (The Silence)

영화 '침묵'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삼부작'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이다. 이 '믿음의 삼부작은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에서 시작하여 '겨울 빛'을 거쳐 '침묵'에서 끝난다. 그래서 베리만은 여러번 이 영화는 신앙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영화는 알랑 르스네(Alain Resnais)의 '마리엥바드에서의 마지막 해'(Last year at Mairenbad, 1961), 안토니오니(Michelangelo Antonioni)의 '모험'(L'aventura, 1960), 뷔뉴엘(Luis Bunuel)의 'Belle de Jour'(1967)과 더부러 현대영화의 좌표로 추대 받고 있다.

영화의 원판에는 성행위의 장면, 여성의 나체, 자위행동, 방뇨, 한쌍의 남녀가 극장의자에서 자행하는 성교 등이 살짝 살짝 끼어있고 또 난폭한 언어구사가 스웨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스웨덴의 검열국에서 무사통과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상영되었다.

지성형 언니 에스터(Ester)와 젊고 매력적인 안나(Anna)의 해묵은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반목을 에로틱하게 분석하고 있다. 에스터는 완고할 뿐아니라 대단한 중환을 앓고 있다. 여기에 안나의 아들 요한(Johan)이 함께 밤기차를 타고 중부 유럽의 가상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중 다음 역인 가상의 도시 티모타(Timoka)에서 모두 하차한다.

에스터가 술과 담배로 방에서 골몰하고 있는 동안 요한은 호텔의 복도에서 두리번 하다가 스페인에서 온 난쟁이 연극단을 만난다. 한편, 안나는 시내로 가서 한 카페에 들린다. 거기서 그녀는 웨이터의 추파를 받고 나서 어느 어둠침침한 극장에 갔더니 젊은 부부가 좌석에서 섹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감흥을 느낀다.

보란듯이 안나는 카페의 웨이터 데리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목격한 요한이 에스터한테 투덜거린다. 에스터는 잠시후 안나한테 가서 대결한다. 안나는 다짜고짜로 "자기도 언니처럼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언니의 모든 행세가 위선적인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에스터는 "나는 너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으며 너의 생각이 틀렸다"고 다짐한다.

방을 나가면서 에스터는 "불쌍한 안나" 라고 말하니 안나는 그 말에 약이 올랐다. 남자가 그녀를 다시 원하자 그녀는 미친듯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클라이막스에 올라서 울기 시작한다. 에스터는 복도에서 기절하여 쓰러진다.

이 시점에서 베리만의 영화는 신의 침묵을 개탄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성적 충동을 파고드는 심리적 영화로 전환하고 있었다.

3. 페르소나 (Persona)

페르소나는 현대 심리극의 대표작중 하나로 미니말리즘(Minimalism)의 상표를 달고 있다. 미니말리즘은 20세기 중반에 미술계에서 태동하여 음악계 및 건축계로 파급되고 심지어는 문학계에 까지 미치었다. 문학에서 미니말리즘은 될 수 있는 한 말을 아끼고 외관적 서술에 요점을 두고 전체적인 문맥으로 뜻을 더듬게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판독력이 심히 요구된다. 라틴어에서 페르소나는 원래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지칭하는데 배우들의 역 즉 배역의 의미로도 쓰이겠다.

1965년 베리만이 페렴에서 회복하는 도중 이 '페르소나'의 대본을 썼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페르소나'나 '외침과 속삭임' 을 내가 갈 수 있는 한계점까지 이끌고 갔다. 즉 영화에서만 가능한 말없는 비밀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사실 페르소나가 나를 살려주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나의 모든 업적이 씻어버릴 번 했다."

영화는 십자가, 남자의 성기, 거미, 희극 장면 등 여러 삽화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한 소년이 여러 시체 옆에서 어머니인 엘리자벧과 간호사 알마(Alma)의 영상사이에 들락날락하는 영상을 길게 보여준다.

"젊은 간호사 알마가 여자배우 엘리자벧(Elisabet Vogler)의 간호를 맡는다. 엘리자벧은 원인불명의 실언증으로 입원하였다. 그녀는 병원장의 바닷가 별장에서 치료받게 특별히 배려받게 된다. 환자는 처음부터 긴장하고 있었지만 월남의 불속에서 승려가 자살하는 것을 보는 순간 심한 공포증에 빠진다. 환자는 며칠 별장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느슨해 진다. 그러나 계속 말 못하고 있으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차츰 두 여인이 친숙해지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시험한다. 하루는 환자의 편지를 부치러 가다가 간호사가 슬쩍 열어본다. 환자가 간호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는 내용이다. 한참동안의 싱강이 끝에 간호사가 끓는 물통을 환자에게 던지려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노'라고 발설한다. 이때 간호사는 그녀의 병이 가짜라고 판단한다.

그날 저녁 환자가 자고 있는데 그녀의 남편 포글러(Vogler)가 정원에서 소리친다. 간호사가 여러번 자신을 밝히는데도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계속 소리치며 속삭인다. 포글러와 간호사가 사랑을 승화하고 있는 동안 환자는 침대옆에 앉아 있다가 공포에 싸인 얼굴을 하고 있다가 소리쳐 울어댄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벧은 어린 소년의 사진을 들고 몹씨 고통스러워 한다. 그때 간호사가 그녀의 생애를 얘기해 준다. "엘리자벧, 너는 부인과 배우의 자질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 다만 모성적인 면이 부족하다." 사실 엘리자벧은 애기를 배고 있는 동안 자기 모양새에 몹시 우려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번 유산시키려 시도했다. 애기를 분마한 후에도 애기를 몹시 멀리하였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아들이 커지면서 엄마의 사랑을 몹시 갈구하기 시작한다.

엘리자벧이 전혀 자성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자 간호사는 짐을 싸고 별장을 떠나 버린다.

정홍택 (상대 61)

워싱턴 장군과 밸리 포지(Valley Forge)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가까워 오면 각 도시들은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준비에 열을 올린다. 독립기념일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이다. 239년 전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자유의 종이 울려 미국 13개 주에 퍼진 독립운동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 거리에 나와 독립선언문 낭독하는 소리를 경청했고, 열광했다고 역사가들은 전한다. 젊은 남자들은 자랑스럽게 독립군에 자원입대했고 여성들은 각종 전쟁용품 제작에 무료봉사하며 한 마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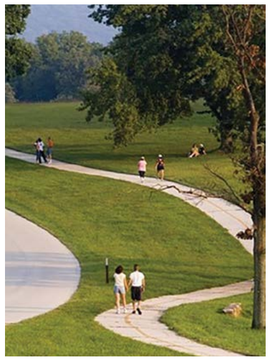
지금도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세계의 매스콤은 필라델피아에 초점을 맞춘다. 당시 수도였던 이 도시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라성같은 독립투사 인물들을 재조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때 델라웨어 강가에서 행해지는 불꽃놀이다. 밤하늘에 펼쳐지는 불꽃의 향연은 미국인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화려하고 시끄럽고 요란스럽다. 가장 미국적인 대중 잔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인 또 하나의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밸리 포지(Valley Forge)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 곳 제일 높은 언덕에 교회가 하나 우뚝 서있다. 이 교회 앞 넓은 풀밭이 바로 그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다.

7월 4일(독립기념일) 정오가 가까워지면 단정한 캐쥬얼 복장의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교회 앞 넓은 풀밭에 자리를 잡는다. 피크닉 보자기를 들고 와서는 각각의 음식 바구니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든다. 그 옆 그룹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즐거운 가족 파티 같은 분위기를 즐긴다.

12시 정오가 되어오면 주위가 정숙해 지며 어른들은 뛰노는 아이들을 불러 자리에 앉힌다. 이윽고 미국국가가 공원 전체로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어디서 나는 소릴까? 교회 첨탑 꼭대기가 진원지이다. 종음악(Bell Music)인데 국가연주를 시작으로 '독립기념 음악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鐘音樂은 독립기념일을 시작으로 여름7, 8월 동안 매주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밸리 포지(Valley Forge)는 국립공원이라고는하나 울창한 숲에 아람드리 나무가 하늘을 향해 치솟거나, 기암괴석, 그림같은 호수가 있는 그런 관광공원이 아니다. 야트막한 구릉이 꿈 속처럼 펼쳐지고 그 위로 푸른 잔디가 덮여있어 눈이 시원한 평화스러운 지역이다. 저 멀리 울창한 숲이 병풍같아 아늑함을 더한다.



푸른 잔디로 뒤덮인 언덕들에는 머리 가름 마같은 관광도로들이 우리를 여기저기 인도한다. 통나무집들이 비온 뒤 버섯들처럼 옹기종기 서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옛 대포들이, 더 가면 독립군 장군들의 동상들이 우리를 맞는다.

이 유적들 하나하나가 저마다 역사를 품고 있어 귀있는 자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1776년 독립선언이 선포되자 영국정부는 독립군을 초전에 박살내려 정예 부대를 미 대륙에 파견했다. 세계 최강의 영국군에 비해 민간인 지원병으로 급조된 독립군은 훈련, 병참 등 군대로서의 외형조차 제대로 갖출 여유가 없었다. 죠지 워싱턴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런 군인들이 영국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바위에 달걀 던지기격이었다. 노련한 전술, 세련된 진영에 화려한 복장을 갖춘 영국 정규군, 이에 비해 독립군은 말 그대로 민간복장의 까마귀떼였다. 애국심만으로 싸움에 이길 수는 없지 않은가. 싸우기만 하면 패하는 독립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식량과 무기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못했다.

브랜디와인 전투에서는 결정적으로 크게 패했다. 승전한 영국군은 수도 필라델피아로 진군했고 독립군 의회(정부)는 미리 도주해 수도를 비워 주었다. 워싱턴 장군은 살아남은 군대를 이끌고 밸리 포지로 들어와 일단 군대를 점검했다. 전사자가 많았고 도망자 또한 적지 않았다. 부대별로 점호해 보니, 30명의 병졸밖에 없는 연대, 장교 한 사람 뿐인 대대 마저도 있었다. 군복이 없어 입영할 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말 그대로의 사병(私兵)들이었다. 어떤 젊은이는 신고있던 신발이 닳아서 군복을 뜯어 그 헝겊으로 발을 싸기도 했다.

당시에는 겨울이 오면 일단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독립군은 여기 밸리 포지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다. 독립군 의회(정부)는 요크시(市)로 피난을 가, 정착했다. 그들은 거기서 계속 워싱턴 장군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칩거해 있지만 말고 빨리 나가 전투해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라고 재촉이었다. 마침내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적극 추천한 죤 아담스 마져도 그를 비판하기에 이르자 워싱턴 장군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눈과 어둠으로 뒤덮힌 황량한 산 중턱을 지키면서 눈을 덮고 자는 것보다는 편안한 실내에서 난로불 쬐이며 잔소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요."

이에 격분한 대륙회의는 연전연패의 고집쟁이 워싱턴 장군을 해임할 것을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야심의 사나이 호래이쇼 게이츠 장군이 대안이었다. 그러나 싸움 중에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전법에 따라 이 토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도를 점령한 영국군은 언제 밸리 포지로 진격해 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끝장이다. 퇴각할 여력조차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마일 밖의 영국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예 무시한 듯 하다.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궤멸하리라고 예상, 봄까지 기다린 것인지도 몰랐다.

대륙회의는 워싱턴 장군에게 더 이상 군수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제부터 무서운 적은 영국군이 아니고 동(冬) 장군이다. 겨울이 깊어지자 매일 동사자가 나오고 밤이 지나면 손 발에 어름 박힌 병사가 줄을 이었다. 마취제가 떨어져 힘센 장정들이 환자의 사지를 누르고 톱으로 동상난 팔 다리 절단수술을 한다. 환자의 고통 소리는 쌩쌩부는 바람에 석여 멀리멀리 공중에 날아가 버린다. 소독약이 없어 자르고 난 상처에 위스키를 부어 살균을 해야 했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캄캄 어둠뿐이었고 빛은 보이지 않았다.

벽이 사면에서 가로 막으면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던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워싱턴 장군의 마지막 기댈 곳은 하늘, 거기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혼자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끝입니다. 이 겨울,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밤 이었다.

"진군하라!"
"예?"
주위는 조용했다. 다시 기도로 물었지만 나무들만이 바람에 울고 있었다. 그는 잘못들은 환청이라고 생각하고 하산했다. 그 다음 날 다시 산에 올라 기도를 시작했다.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듯 했다.
"진군하라!"
"어? 또 그 소리"
다시 하산했다. 셋째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며 세 번째의 같은 응답을 받자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고 하산 즉시 전 부대 총동원령을 내렸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막 잠자리에 들던 군사들은 한밤중 나팔소리에 적군이 기습했나 놀랜 가슴을 안고 뛰쳐나와 정렬했다.

군사들 앞에 선 워싱턴 장군은 진군 명령을 내렸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말타고 앞장섰다. 델라웨어 강(江) 건너 트렌튼시(市)에 주둔해 있는 영국군 부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측근 장성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다. 펜실바니아와 뉴져지의 사이로 겨울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북동풍이 싸락눈을 몰아 왔고 밤이 깊어가며 온도가 떨어져도 행진은 계속되었다. 춥고 배고픈 군사들은 묵묵히 선두를 따라 걷기만 했다. 불행중 다행, 바람이 군인들의 뒤에서 밀어주어서 행진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델라웨어강변에 도착하고 보니 강은 덩어리 얼음으로 꽉 차 있었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도강작전을 폈다. 그러나 바람과 빠른 물살에 밀려 셋 중 둘은 실패,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부대만이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강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지체하면 다 죽는다. 도강(渡江)에 성공한 1/3의 병력은 계속 진군했다.

한편 트렌튼에는 영국 헤시안 장군 휘하 약 1,500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독일에서 뽑아온 용병들이었다. 마침 이 날 부대에 배가 한 척 도착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다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방문 하는 일이 적지만 어렸을 때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항상 미소를 짓게 한다. 아이들이 2살, 3살 때의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때였다. 매년 싼타크로스 노릇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가져오게 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문 쪽으로 뛰어 갔다. 내가 문을 열자 싼타크로스가 서있는게 아닌가? 아이들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놀라서 너무나 조용했다. 그날 밤 흥분한 아이들을 재우는데 조금 어려웠으나 벌써 34년이 지난 지나간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가슴에 훈풍을 불어 준다. [윤상래]

아이들을 방문한 싼타: 1983. 12. 24.

Merry Christmas &

2007년 겨울, 저는 스페인으로 '저만의'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만의' 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홀로 다녀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리 흔한 배낭여행 코스가 아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그것도 비수기 중의 비수기인 겨울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대학교 1 학년 또는 2학년 여름방학을 오롯이 친구들과 배낭 여행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를 미뤘고, 결국 8학기를 모두 마치는 동안 배낭여행의 '로망'을 실현하지 못하다가 졸업을 앞두고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만 해도, 두 나라가 모두 카톨릭 국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사방이 얼마나 근사하게 장식되어 있던지요! 정말 모두가 이 날 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온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돌아다니는 내내 마치 한 번도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름도 생각나지 않지만, 어느 광장에 서 있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가 현실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조만간 기회를 내어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그 화려함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황보민영]

나의 성탄절 추억 어릴때 살던 집에서 한 불럭 거리에 교회가 있었다. 동트기전 새벽에 울리던 교회 종소리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의 매일 새벽 바쁘게 울렸고, 오색 등으로 단장하며 성탄의 기쁨을 노래했었다. 그 때는 흰눈도 참 많이 내려 허벅지까지 눈이 쌓이곤 했다. 우린 그 때 마다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 자랑스럽게 숱으로 눈썹, 눈 그리고 입과 코를 만들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 양팔을 만들어 대문 앞쪽에 세워 놓곤 했다. 그런 어릴적 추억들은 겨울만 되면, 교회의 크리스마스 오색 장식들과 함께 떠오르는 아련하고 따뜻한 추억의 한 장면들이다.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인데 5-6 명의 교회 청소년들이 우리 집 대문 밖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문밖으로 나갔다, 흰눈이 내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밤 목도리로 감싸 추위를 피하며, 불러주었던 그 찬송은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랜기간 남아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흰눈 내리는 어두운 적막을 타고 마을을 넘어, 온 세상으로 평화의 메세지를 싣고 퍼져 가는듯 싶었다. 그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며, 나는 싼타가 장난감 선물을 한 바탕 싸들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정말 나를 찾아 오시는가? 하늘에서 눈과 함께 이곳으로 올까? 하는 호기심 반 기다림 반으로 가슴을 채웠다. 전쟁이 막 끝난, 아니 휴전의 50년 초라, 나라는 온통 상이 용사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고, 혼돈과 절망 그리고 결핍이 거리를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다. 누구 하나 상처 받지 않은 영혼이 없을 만큼 참으로 절망적이고 피폐한 때였다. 그래서 더 춥고 그래서 더 안타깝게 회상되는 것 같다. 춥고 얼어붙던 성탄 무렵이면 더 크게 들려오던 교회의 종소리... 어린 그 시절에도 들려와 마음 따뜻하게 적셔주곤 했던 종소리가 이제도 댕, 댕,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 하다. 대형 총기 사고의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고, 극단적 무슬림의 폭력이 잦은 요즈음, 평강의 왕으로 이땅에 오실 예수님이 더욱 기다려진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이땅에 오셔서 무너진 이 세상 고쳐 주소서....
[신응남]

Happy New Year

뉴욕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28년째 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횟수보다 많아지고 있네요. 매년 12월 중 하루는 맨해튼에 나가서 꼭 보는 Macy's 백화점의 윈도우 장식과 올해로 85년째 장식된다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것은 기쁜 연례 행사입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뉴욕에 처음 온 사람처럼 들뜬 마음으로 사진 찍고, 구경하고 그러고 옵니다. 또, 1946년에 만들어졌다는 "It's a Wonderful Life" 영화를 처음 보고 눈물 흘리며 감동한 것도 이제 추억처럼 느껴지는 일들이네요. [허유선]

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군인 위로사절단'으로 격려 차 방문한 것이다. 이 겨울밤에 무엇을 해서 손님들을 대접할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묘안이 떠 오르지 않는다. 마침내 사령관은 당시 유행하던 포커게임에 손님들을 초대하여 긴 밤을 지나고자 했다. 게임실에 들어가기전 부관에게 오늘 밤은 절대로 게임을 중단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렸다. 눈보라치는 이 밤에 싸움이 벌어질 일은 없겠고 그 이외에 무슨 변고가 있겠는가.

깊은 밤, 한 민간인이 헐레벌덕 영국진영에 도착했다. 사령관에게 아주 급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자 보초는 즉시 부관에게 인도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꼭 사령관께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할 수 없이 부관은 게임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사령관 귀에 대고 누가 꼭 뵙겠단다고 속삭였다. 사령관은 한마디로, "나가!".

부관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돌아오자 그 사람은 절망적인 얼굴로 한참 생각하더니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한다. 무언가를 긁적여 써서는 봉투를 봉하고 부관에게 내말며 사령관에게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간절한 그 표정에 부관은 다시 게임방에 들어가 봉투를 상관에게 전하며 지금 꼭 읽으셔야 한다고 속삭였다. 마침 크게 돈을 잃고 있던 사령관은 "알았어" 하며 그 봉투를 안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아침에 한 잠 자고 나서 보아야지.

그 밤, 발소리 죽이며 영국군 진영에 도착한 독립군은 외곽 검문소에 위병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군은 방심하고 있다. 독립군의 기습작전은 완전 성공이었다. 그날 밤 영국군 1,500명 중 22명이 전사했고 83명이 부상, 손들고 항복한 숫자가896명이나 되었다. 나머지는 도주했다. 아군은 전사자 하나없이 부상 6명뿐이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이제부터 배 불리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신발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포로 부상병들을 아군처럼 치료해 주고 최선의 대우를 하도록워싱턴 장군은 명을 내렸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트렌튼 전투'이다. 독립 전쟁 전체로 볼 때 굉장한 전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까지 연전연패의 독립군에게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었다. 대륙회의에서도 워싱턴 장군에 대한 위상이 복귀되었고 국민들의 신망 또한 회복되었다. 그러나 워싱턴 장군을 가장 기쁘게한 것은 따로 있었다. 유럽의 군인훈련 전문가가 제 발로 찾아와 이 오합지졸들을 훈련시켜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유럽 프로이센 출신 역전의 장군 슈토이벤 남작이 바로 그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밸리 포지에 기어들어온 독립군은 슈토이벤 남작의 헌신적 노력으로 정예군으로 매일매일 변모해갔다. 1778년 6월 보무도 당당하게 밸리 포지를 떠날 때는 아무도 그 옛날의 남루한 모습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 후 사라토가 전투에서 대승하자, 머뭇머뭇거리며 전황을 살피던 프랑스, 스페인에 확신을 주어 참전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저울추는 이제 확실히 미국과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필라델피아가 미국 탄생의 모태였다면 밸리 포지는 미국 군대가 태어난 장소라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1953년 미국 성공회는 워싱턴 장군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 장소에 교회당을 헌당했다. 이름하여 '워싱턴 기념 교회(Washington Memorial Chapel).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간 성곽의 꼭대기에는 50개의 종(鐘)이 달려있는데 각 종이 음계(音階)에 맞추어 제작, 음악을 연주하도록 되어있다. 각 개의 종은 미국 50개 주에서 한 개씩 헌납했다고 한다.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본다. 한 여인이 등잔 하나를 공손히 높이 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동상의 제목은 "한 나라의 탄생 (The birth of a Nation)"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워싱턴 장군의 기도하는 모습의 동상이 있어야 할 그 곳에 연약한 여인이 금방 꺼질 것 같은 등장을 높이 들어 바치는 상을 올려놓은 그 깊은 상징적 의도가 느껴진다. (워싱턴 장군이 기도하는 상은 교회 내 강대상 앞에 모셔져 있다.) 끝

주 :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삼국사기적 방법'과 '삼국유사적 방법'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前者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대로 주요 사건위주, 연대위주로 써나가는 교과서적 서술방법이요 또 다른 방법(後者)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만 그 당시 민중 혹은 백성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기록한다. 前者가 이긴자 위주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한다면 後者는 백성들의 민담이라고 할 수 있다. 後者的 서술에서는 가끔 정사와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견해를 같은 비중으로 보아야 한다. 예술가들은 바로 '삼국유사적 기록'에 흥미를 가지고 문학, 미술, 음악을 창조한다. 이 글도 '삼국사기적 사실'에 기본 뼈대를 삼고, 전해오는 '삼국유사적 이야기'를 덧씌어 쓴 역사풀이임을 밝혀둔다.

2018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신년하례,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총동창회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식을 겸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및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9-8000

▲ 연락처: 유병원 총무국장, 714-788-0954
▲ 회비: 개인 $80, 부부 $150 (Pay to: SNUAA, INC)
▲ 참가신청: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snuasocal@gmail.com 또는 각 단과대 회장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성주경, 신임회장 강신용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전회장단 이월금

47,347.11
(11/29) 6,511.97

총동창회 보조금

3,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

업소록 광고비

서동영 (사대 60) 240
신동국 (수의 76)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종묘 (간호 69)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재훈 (공대 64) 240
주기목 (수의 68) 240

광고비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신응남 (농대 70) 1,200
SeAh 이병준 1,500
발전기금 (12/6) 700

모교발전기금

오인환 (문리 63) 125

브레인 네트웍 후원금

윤상래 (수의 62) 1,000
오인환 (문리 63) 100
서동영 (사대 60) 200

장학금

김동훈 (법대 56) 100
김은섭 (의대 53) 100
이건일 (의대 62) 125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수재민 돕기 후원금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김문소 (NE) 100
김연화 (음대 68) 200
신응남 (NY) 200
손재옥 (PA) 1,000
황선희 (PA) 200
합계: 2,400

후원금

남가주

김영순 (음대 59) 200
김원탁 (공대 65) 200
김인종 (농대 74) 25
김종표 (법대 58) 500
김창신 (사회 75) 2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25
박종수 (수의 58) 100
백옥자 (음대 71) 4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200
이영송 (치대 63) 200
이영일 (문리 53) 200
임창회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7) 200
정재훈 (공대 64) 110
최은관 (상대 64) 300
최종권 (문리 59) 200
하기환 (공대 66) 200

북가주

강정수 (문리 62) 125
이성형 (공대 57) 150
김윤범 (의대 54) 200

뉴욕

강에드 (사대 60) 2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박상원 (문리 54) 40
배정희 (사대 54) 200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운순 (의대 52) 200
이전구 (농대 60) 1,100
이준행 (공대 48) 2,0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1,0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김선혁 (약대 59) 100
김은한 (의대 60) 850
김제호 (공대 56) 100
송미자 (농대 62) 65
윤상래 (수의 60) 40,1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의인 (공대 68) 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욱 (의대 60) 1,100
정태영 (문리 71) 1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문리 69) 200
최홍균 (공대 69) 1,0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시카고

김연화 (음대 68) 150
조형원 (약대 50) 500

아리조나

진명규 (공대 70) 1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200
송재용 (의대 69)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68) 200
박평일 (농대 69) 300
서윤석 (의대 62)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인옥 (68) 25
장효열 ( ) 100
한의생 (수의 60) 2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2,000
허지영 (문리 66) 2,000

필라델피아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서경희 ( ) 100
서중민 (공대 64) 150
송영두 (의대 56) 500
제갈은 (문리 59) 150
조정현 (수의 58) 300
조화연 (음대 64) 150

플로리다

전영자 (미대 58) 50

커네티컷

유시영 (문리 68) 500

케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200

하와이

김승태 (의대 57) 400

하트랜드

오명순 (가정 69) 500
최은관 (상대 64) 3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 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75 (2017. 7 ~ 2018. 6)	☐ $240 (2017. 7 ~ 2018. 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500	☐ $150 (2017. 7 ~ 2019. 6)	☐ $480 (2017. 7 ~ 2019. 6)	☐ Charity Fund (나눔) $_____
☐ $1,000	☐ $3,000 (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 ____		general@snuaa.org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 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한글이름:	영어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 E-mail로만 동창 회보를 받기 원합니다.				
Cell Phone (option):				
주소, 직장, 전화번호 변경 사항 (우측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S.CA/NV

강경수 (법대 58)
강동순 (법대 59)
강영호 (의대 57)
강정훈 (미대 56)*
강중경 (공대 48)
강홍채 ( )
강희창 (공대 57)
고석원 (문리 50)
권기상 (상대 72)
권시한 (문리 52)
권영달 (문리 50)
권처균 (공대 51)
김건진 (문리 62)*
김경옥 (미대 61)
김광은 (음대 56)
김규현 (법대 53)
김난영 (공대 53)
김동산 (법대 59)*
김병연 (공대 68)
김병완 (공대 58)
김석홍 (법대 59)
김선기 (법대 59)
김성복 (공대 50)
김성환 (의대 65)
김수영 (사대 57)
김순길 (법대 54)
김순길 (문리 61)
김순자 (치대 57)*
김영덕 (법대 58)
김영순 (음대 59)
김영춘 (수의 64)
김원경 (약대 59)
김원호 (약대 63)
김용재 (의대 60)
김원탁 (공대 65)
김인종 (농대 74)
김일영 (의대 60)
김정애 (간호 69)
김정희 (음대 56)
김재영 (농대 62)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창무 (음대 53)
김창신 (사회 75)
김태윤 (문리 53)
김택수 (의대 57)
김현황 (공대 64)
김홍묵 (문리 60)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섭 (의대 66)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동수 (공대 73)
문인일 (공대 51)
민병곤 (공대 65)
민병돈 (문리 58)
민수봉 (상대 55)
민일기 (약대 69)
박대균 (수의 57)
박병원 (의대 49)
박부강 (사대 64)
박순자 (간호 60)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인수 (농대 64)
박인창 (농대 65)
박일우 (의대 70)
박임하 (치대 56)
박은주 (간호 70)
박종수 (수의 58)
박찬호 (농대 63)
방정자 (간호 61)
박취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혜란 (미대 70)
배동완 (공대 65)
배병옥 (음대 58)
배성진 (대원 79)
배옥례 (간호 55)
백만일 (공대 64)
백성식 (약대 58)
백소진 (문리 55)
백옥자 (음대 71)
변영근 (약대 52)*
서동영 (사대 60)
서명석 (문리 61)
손기용 (의대 55)
손선행 (간호 69)
손학식 (공대 61)
신동국 (수의 76)
신규식 (농대 61)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양광주 (문리 58)
양승문 (공대 65)
양운택 (의대 58)
양은혁 (상대 56)
양창효 (상대 54)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음대 66)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희자 (음대 68)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건일 (의대 62)
이기재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명선 (상대 58)
이범모 (치대 74)
이범식 (공대 61)
이서희 (법대 70)
이성자 (간호 76)
이소희 (의대 61)
이송희 (간호 47)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장길 (치대 63)
이정근 (사대 60)
이정리 (사대 60)
이정화 (공대 52)
이정희 (음대 55)
이재권 (법대 56)
이재선 (농대 58)
이종묘 (간호 69)
이준호 (상대 65)
이중희 (공대 53)
이채진 (문리 55)
이해영 (공대 56)
이호진 (간호 74)
이홍표 (의대 58)
이휘영 (법대 59)
이희충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진환 (치대 68)
임창회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소현 (미대 65)
장인숙 (간호 70)
장칠봉 (수의 65)
전경철 (공대 57)
전낙관 (사대 60)
전상옥 (사대 52)*
정길택 (수의 54)
정상진 (상대 59)
정연웅 (상대 63)
정예진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태무 (사대 44)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 황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동준 (의대 59)
조만연 (상대 58)
조순자 (치대 57)
조정시 (공대 60)
조태준 (문리 59)
조임현 (간호 72)
조재길 (사대 61)*
주정래 (상대 65)
최경홍 (공대 60)
최동욱 (의대 59)
최 영 ( )
최영근 (사대 61)
최은관 (상대 64)
최재윤 (인문 54)
최종권 (문리 59)
하기환 (공대 66)*
한은실 (음대 61)
한효동 (공대 58)
허영진 (문리 61)
현기웅 (문리 64)
홍동식 (법대 64)
홍성선 (약대 73)
홍수웅 (의대 59)*
황선주 (간호 69)*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 (의대 61)
강정수 (문리 62)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병덕 (법대 58)
김병호 (상대 57)
김윤범 (의대 54)
김옥경 (음대 69)
김정희 (음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남광순 (음대 64)
박경룡 (약대 63)
박종성 (법대 53)*
부영무 (치대 72)
손창순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안병협 (공대 58)
안호삼 (문리 58)
온기철 (의대 65)*
유두영 (공대 55)
유승일 (의대 59)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임정란 (음대 76)
정지선 (상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유석 (의대 58)
최경선 (농대 65)
홍겸삼 (문리 61)
홍병익 (공대 68)
황동화 (의대 65)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에드 (사대 60)
계동휘 (치대 67)
고광호 (약대 56)*
고순정 (간호 69)
곽노섭 (문리 49)
곽상준 (약대 55)
권문웅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
김광현 (미대 57)
김동진 (약대 56)
김동환 (약대 56)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술 (약대 52)*
김봉련 (사대 54)
김상만 (법대 52)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성현 (약대 56)
김성호 (공대 71)
김세중 (공대 50)
김수산 (의대 52)
김수일 (약대 62)
김영애 (사대 56)
김영일 (약대 58)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예흠 (의대 55)
김완주 (의대 54)
김용술 (상대 56)
김용연 (문리 63)
김욱현 (의대 59)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은섭 (의대 53)
김인형 (미대 59)
김정빈 (약대 54)
김재경 (농대 58)
김종현 (법대 57)
김진자 (간호 60)
김태일 (공대 68)*
김해암 (의대 52)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국 (약대 54)
라준국 (공대 48)
맹광호 (문리 71)
문석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민병갑 (문리 63)
박두선 (공대 68)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박영태 (상대 63)
박진우 (상대 77)
반영철 (약대 54)
방준재 (의대 63)
배명애 (간호 47)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변해순 (간호 68)
변호련 (간호 63)
서병선 (음대 65)
서정웅 (약대 63)
선종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손경택 (농대 57)
송영순 (사대 60)
신달수 (공대 59)
신응남 (농대 70)
양명자 (사대 63)
우대식 (?)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윤봉균 (사대 54)
윤신원 (의대 50)
윤영섭 (의대 57)
윤인숙 (간호 63)
윤 철 (문리 54)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대영 (문리 64)
이성근 (의대 60)
이승일 (경영 66)
이영숙 (간호 56)
이영희 (미대 68)
이운순 (의대 52)
이전구 (농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준행 (공대 48)*
이중춘 (공대 56)
이종환 (법대 51)
이태상 (문리 55)
이태안 (의대 61)
임공세 (의대 61)
장화자 (간호 60)
전성진 (사대 54)
전재우 (공대 61)
정인식 (상대 58)*
정창동 (간호 45)
정해민 (법대 55)
주공로 (공대 68)
조명애 (간호 47)*
조종수 (공대 64)
차국만 (상대 56)
차수만 (약대 71)
최구진 (약대 54)*
최수강 (의대 71)
최영태 (문리 67)
최진영 (문리 55)
최한용 (농대 58)
한태진 (의대 58)
허경열 (의대 73)
허병렬 (사대 42)
허선행 (의대 64)
허유선 (가정 83)*
홍선경 (의대 58)
홍정표 (음대 67)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일석 (보건 69)
곽세흥 (공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문소 (수의 61)*
김선혁 (약대 59)
김 영 ( )*
김정환 (공대 52)
김제성 (공대 87)
김제호 (상대 56)
김 현 (농대 62)
박종건 (의대 56)
송미자 (농대 62)
윤상래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윤용훈 (공대 67)
윤은상 (상대 66)
이강원 (공대 66)
이영인 (사대 74)
이의인 (공대 68)
이정수 (공대 71)
이희규 (공대 69)
장수인 (음대 76)
장용복 (공대 5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조성호 (공대 85)
최선희 (물리 69)
최홍균 (공대 69)
한승원 (미대 60)
홍지복 (간호 70)
황보민영 (공대 03)

북텍사스
LA/DALLAS

김종원 (의대 60)
박영규 (사대 66)
박준섭 (약대 63)
유 황 (농대 56)
조진태 (문리 57)
탁혜숙 (음대 67)
황명규 (공대 61)*

록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 (의대 64)
이경화 (공대 56)

미네소타
MINNESOTA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성옥진 (치대 87)
송창원 (문리 53)
왕규현 (의대 58)
주한수 (수의 62)
황효숙 (사대 65)

샌디에고
SAN DIEGO

강영호 (의대 57)
남장우 (사대 56)*
민영기 (치대 61)
박경호 (사대 53)*
윤진수 (의대 57)
이문상 (공대 62)
이영신 (간호 77)
임준수 (의대 57)
전원일 (의대 77)
조두연 (수의 62)
진성호 (공대 64)*

시카고
IL/IN/WI/MI

강영국 (수의 67)
강창만 (의대 58)
고병철 (법대 55)
구경회 (의대 59)*
김규호 (의대 58)
김갑준 (의대 57)
김사직 (상대 59)
김성범 (상대 50)*
김성일 (공대 68)
김승주 (간호 69)
김연화 (음대 68)*
김용주 (공대 69)*
김일훈 (의대 51)
김정수 (문리 69)
김정일 (의대 57)
김재석 (의대 61)
김주호 (의대 58)
김현배 (의대 66)
김현주 (문리 61)
민영기 (공대 65)
박영준 (문리 67)
박용순 (의대 57)
박정일 (의대 61)*
박준환 (의대 55)
박창욱 (공대 56)
배영섭 (의대 54)
서상현 (의대 65)
송재현 (의대 46)
신동화 (문리 55)
신석균 (문리 54)*
심상구 (상대 63)
안신훈 (공대 61)
안은식 (문리 55)
오동환 (의대 65)
오봉완 (법대 52)*
유동환 (수의 68)
이갑조 (간호 51)
이민우 (의대 61)
이덕수 (문리 58)
이상일 (의대 54)
이성길 (의대 65)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용수 (약대 51)
이윤모 (농대 57)
이정화 (음대 56)
이종일 (의대 65)*
임병훈 (의대 54)
임이섭 (미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정승규 (공대 60)*
조대현 (공대 57)
조형원 (약대 50)
채무원 (의대 59)
최혜숙 (의대 53)
한의열 (공대 62)
함성택 (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하계현 (공대 64)

아리조나
ARIZONA

지영환 (의대 59)
진명규 (공대 70)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김용헌 (경원 66)
명인재 (자연 75)
송재용 (의대 69)
여준구 (의대 64)
이명진 (공대 61)
이수자 (공대 62)
장극기 (의대 64)
최영순 (간호 69)
최인갑 (공대 57)

앨라스카
ALASKA

윤제중 (농대 54)
하인환 (공대 56)

오레곤
OR/ID

김상만 (음대 46)
김상순 (상대 67)
성성모 (사대 67)
Shin,JD (인문 58)
박희진 (농대 78)
전병택 (상대 65)
정성국 (인문 73)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 )

워싱턴 DC
DC/MD/VA/WV

강연식 (사대 58)
계화자 (문리 61)
고무환 (법대 57)
곽명수 (문리 65)
김아암 (공대 62)
권철수 (의대 68)
김내도 (공대 62)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병호 (의대 63)
김용덕 (의대 53)
김진수 (의대 60)
김 철 (의대 62)
남춘일 (사대 69)
도상철 (의대 63)
박인영 (의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은희 (미대 68)
박 철 (공대 57)
박홍후 (인문 61)
방정화 (의대 61)
백 순 (법대 58)
서기병 (상대 55)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윤정 (인문 89)
신용계 (의대 62)
안선미 (농대 65)
안세현 (의대 62)
안승건 (문리 55)
양광수 (공대 73)*
우제형 (상대 54)
유덕영 (공대 57)
유정식 (수의 60)
유홍열 (자연 74)
원종민 (약대 57)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이규양 (문리 62)*
이문항 (공대 46)*
이선구 (인문 65)
이유세 (사대 72)
이인옥 (68)
이재승 (의대 55)
이준형 (치대 74)
이진호 (공대 46)*
장윤희 (사대 54)
전희순 (간호 76)
정원자 (농대 62)
정희연 (의대 66)*
조화유 (문리 61)
차임경 (가정 77)
최경수 (문리 54)
최규식 (상대 64)*
최길찬 (사대 88)
최재규 (미대 63)
한의생 (수의 60)
함은선 (음대 77)
홍영석 (공대 58)

워싱턴주
WASHINGTON

김재훈 (공대 72)*
김주응 (의대 56)
박진수 (의대 56)
변종혜 (법대 58)
이순모 (공대 56)*
이회백 (의대 55)
하주홍 (경영 77)
홍영옥 (음대 54)

유타
UTAH/NV

김인기 (문리 58)
김용재 (의대 60)
이 관 (공대 55)*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용건 (문리 48)
오경호 (수의 60)
유성무 (상대 66)
유의영 (의대 61)*
윤민자 (음대 65)
윤영돈 (법대 59)
이종석 (의대 54)
임수암 (공대 62)
주중광 (약대 60)
최재학 (사대 56)
최종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허지영 (문리 66)

중부텍사스
MID-TEXAS

김장환 (공대 81)
박태우 (공대 64)
이영재 (상대 58)
진기주 (상대 60)
최용천 (의대 53)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김순주 (치대 95)
김영우 (공대 55)
김현영 (수의 58)*
김희국 (약대 54)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박영한 (약대 68)
송영두 (의대 56)
송성균 (공대 50)
서재진 (공대 47)
서중민 (공대 64)
신쌍재 (수의 59)
신성식 (공대 56)
심영석 (공대 76)
안세현 (의대 62)
윤정나 (음대 57)
이규호 (공대 56)
이수경 (자연 81)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정수 (의대 56)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주기목 (수의 68)
조화연 (음대 64)
지흥민 (수의 61)
차호순 (문리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최현태 (문리 62)
한기빈 (공대 52)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약대 63)

플로리다
FLORIDA

김동한 (문리 53)
김재석 (의대 66)
박창익 (농대 64)
송용덕 (의대 57)
안창현 (의대 55)
이재덕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조동건 (공대 69)
최준희 (의대 58)
한기빈 (공대 52)
홍순호 (수의 74)*
황현상 (의대 55)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라찬국 (의대 75)
유시영 (문리 68)
홍성휘 (공대 56)

캐롤라이나
SC/NC/KY

김기현 (문리 52)
마동일 (의대 57)
성예경 (치대 54)
이달호 (사대 45)
이범세 (의대 56)
이석형 (사대 56)
이항열 (법대 57)
한광수 (의대 57)*
홍 훈 (문리 75)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서갑식 (공대 70)

하와이
HAWAII

구해근 (문리 60)
김달옥 (사대 55)
김승태 (의대 57)*
손민옥 (문리 52)
손호민 (문리 52)
유재호 (문리 57)
장광수 (사대 50)
최경윤 (사대 51)

하트랜드
IA/MO/KS/NE/AR/OK

구명순 (간호 66)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김승희 (법대 55)
백산옥 (문리 51)
오명순 (가정 69)
이상강 (의대 70)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차봉희 (의대 51)

휴스턴
HOUSTON

김태훈 (공대 57)
김한섭 (의대 53)
박석규 (간호 59)
박유미 (약대 62)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규진 (약대 60)
이길영 (문리 59)
이찬주 (문리 63)
이학호 (수의 59)
임순덕 (의대)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 2017~2019)

김현주 (문리 61)*
서갑식 (공대 70)
오선웅 (의대 63)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USA투어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61 명

남가주
김재영 (농대 62)
김정희 (음대 56)
노명호 (공대 61)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흥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고인)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흥조 (치) • 이영묵 (공) • 이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옥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흥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신응남 (농)
편집 위원:
곽세흥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헌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이민언 (법),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 (상대 68)	213-500-7977	jksung@goodfriendinc.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3801	aamkocpa@gmail.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 (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yahoo.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 (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 (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 (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치영 (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14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회장 윤상래)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Jayone 대표: 이승훈 (상대 74)

최고의 의료진 · 정확한 진단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건강검진으로
최고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세계수준의 건강검진 전문센터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진단

· 전문의가 주요검사 직접시행

· 높은 진단율

(암: 1,3% 대장선종발견율:50%)

· 1:1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 프로그램 구성

· 근거기반의 진단, 표준화된 프로로톨 이행

편리한 건강검진

· 이메일 상담가능

· 다양한 진료과의 검사와 진료를 한 공간에서

· 최적화된 동선으로 검진시간 최소화

(기본:2시간~프리미엄:7시간)

· 유소견 발견시 서울대학교병원 신속 연계

미주 교민들을 위한 서비스

· 출/귀국 일정을 고려한 맞춤 스케줄

· 양질의 영문 결과지 제공

· 결과상담 해외편의 서비스

(결과지 해외수령, 전화결과상담)

· 인근 제휴 숙박시설 50~60%할인

동창회원 및 가족분들께는 검진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8~40층
전화상담: +82-2-2112-5500(공통), +82-2-2112-5503(국제) | 이메일상담: healthcare@snuh.org
http://healthcare.snuh.org